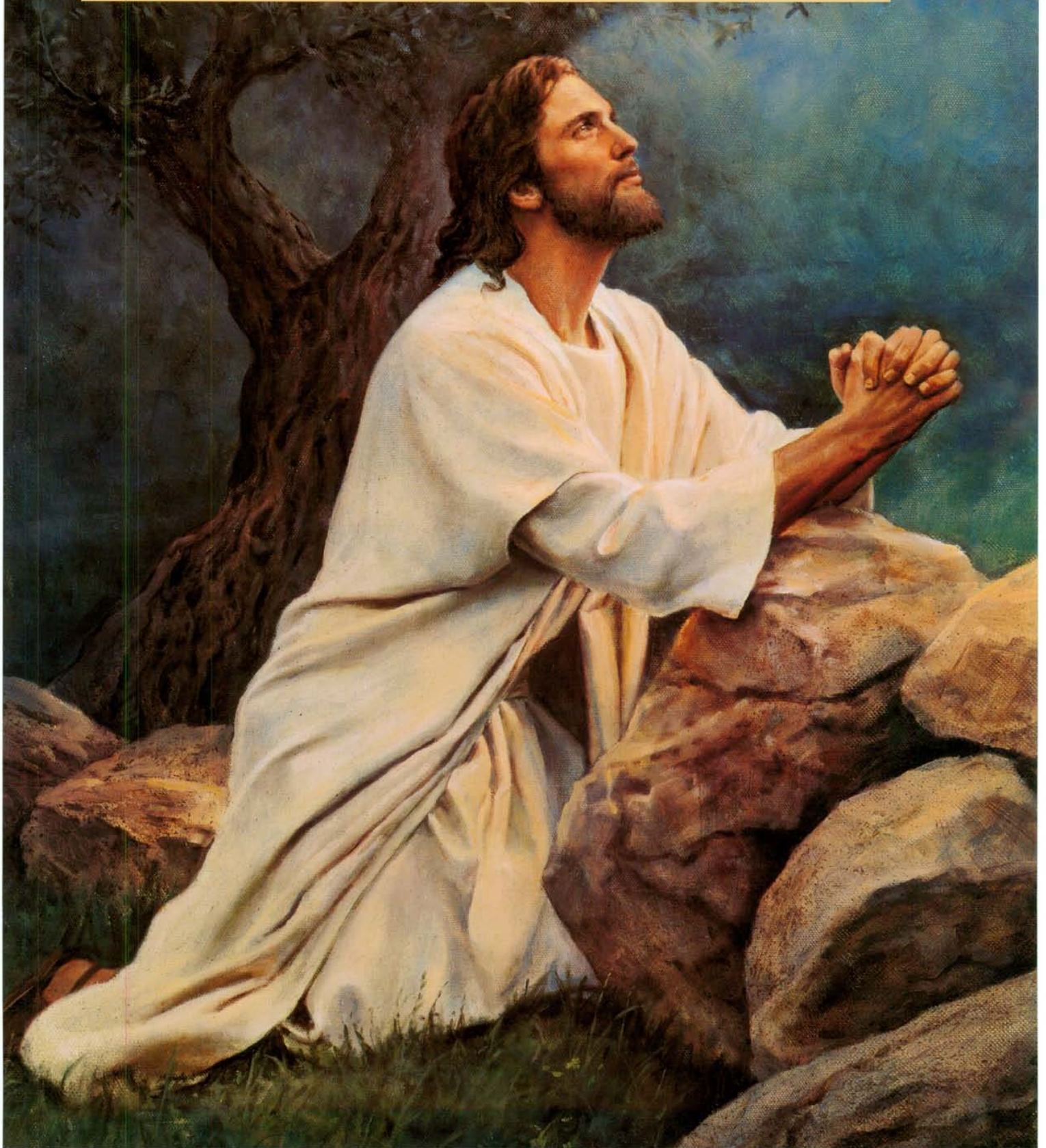


리아호나



리아호나



표지

앞: 델 파슨, *갯세마네에서의 기도*, The Visions of Faith Collection by Mill Pond Press, Inc., Venice, Florida 뒤: 린다 켈리 크리스텐슨, *동산에 있는 무덤*.



친구들란 표지

그림: 시몬 듀이, *지혜가 성장함*, Altus Fine Art, American Fork, Utah의 허가를 받아 사용.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영감을 주는 생각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6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속죄에 대한 간증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성신의 속삭임을 따름
- 30 반복된 출애급 리셀 엠 넬슨 장로
- 40 통가: 믿음의 백성의 땅 리린 포터 곤트
- 48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활용하기

청소년란

- 14 회개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제이 이 젠슨 장로
- 18 말일성도의 소리: "희망의 밝은 빛"
모든 것을 고침 캐서린 매튜스 파비아
어둠으로부터의 구출 헤리 카스트로 벨리스
- 22 리아호나 고전: 평화의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 26 질의 응답: 가난한 사람이 이처럼 많은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 29 포스터: 갑옷을 입으십시오
- 47 알고 계십니까?

친구들란

- 2 예언자와 사도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4 깜짝 활동 스테이시 에이 라스무센
- 7 심심풀이: 옛날과 지금 리처드 라타
- 8 신약성서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
- 13 노래: 거룩한 성전 마빈 케이 가드너와 반야 와이 왓킨스
- 14 함께 나누는 시간: 가장 큰 은사 비키 에프 마쭈모리

2쪽 참조



친구들란, 2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인: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레이트, 닐 에이 맥스웰, 라셀 엠 넬슨, 말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러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스,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잰슨

고문: 제이 캔트 줄리, 더블류 볼프 커, 스티븐 에이 웨스트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엠 나이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레너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벤 캄펜

신인 디자이너: 새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데니스 커미, 켈리 프랫.

로널드 예프 스프라크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와이너

디자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우 부장: 크리스 크리스텐슨

부장: 조이스 헨스

통 권: 제 433호, 제 39권, 제 4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2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희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pril 2002 No.4.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선교사들의 사랑

제 사랑을 아르메니아에서 겸손하게 봉사한 모든 말일성도에게 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 마음을 채우는 이 위대한 사랑으로 저는 아르메니아에서 봉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해 온 많은 형제 자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무관심할 수 없었으며, 이 사랑은 황폐해지고 희망없는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일들을 생기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실비아 카차트리안,
아르메니아 예르반 지방부,
아차프니야 지부

카잔에 일어난 기적

저는 러시아 카잔에 살고 있지만, 고향은 아르메니아입니다. 나이는 열일곱 살이고 1999년 6월 13일에 침례 받았습니니다. 카잔에 교회가 들어온 지는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선교사와 지도자들은 교회를 인가받기 위해 오랫동안 애썼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이 되시기를 그치지"(물몬서 9:15)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업이 온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레릿 카라팻트얀 테보소브나,
러시아 사마라 선교부,
카잔 지부



리아호나가 주는 축복

제 삶에서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갖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리아호나는 제가 제 잘못을 바로잡아 더욱 더 구세주처럼 되도록 도와 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가족을 도와 주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읽을 때, 저는 주님의 영이 제 마음에 역사하심을 느끼며,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게 됩니다. 이 훌륭한 잡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갖고 계신 위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예언자의 말씀과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의 경험으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케일라 알라브린 코로벨,
페루 치클랴요 스테이크,
산타 빅토리아 와드



영감을 주는 생각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FLORIDA 힝클리 대관장의 사진, 촬영: 제드 에이 콜라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께서 팔레스타인의 먼지 나는 길을 걸으시며 몸소 정하셨던 원리들 위에 세워진, 이 위대하고 놀라운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지상에 오실 때 자신을 낮추어, 베들레헴의 한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분의 생애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속죄의 행위로 우리 각자를 위해 그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위해 홀로 피를 흘리셨습니다.”(모임, 예루살렘 센터, 1999년 3월 21일)

**“그분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위해 홀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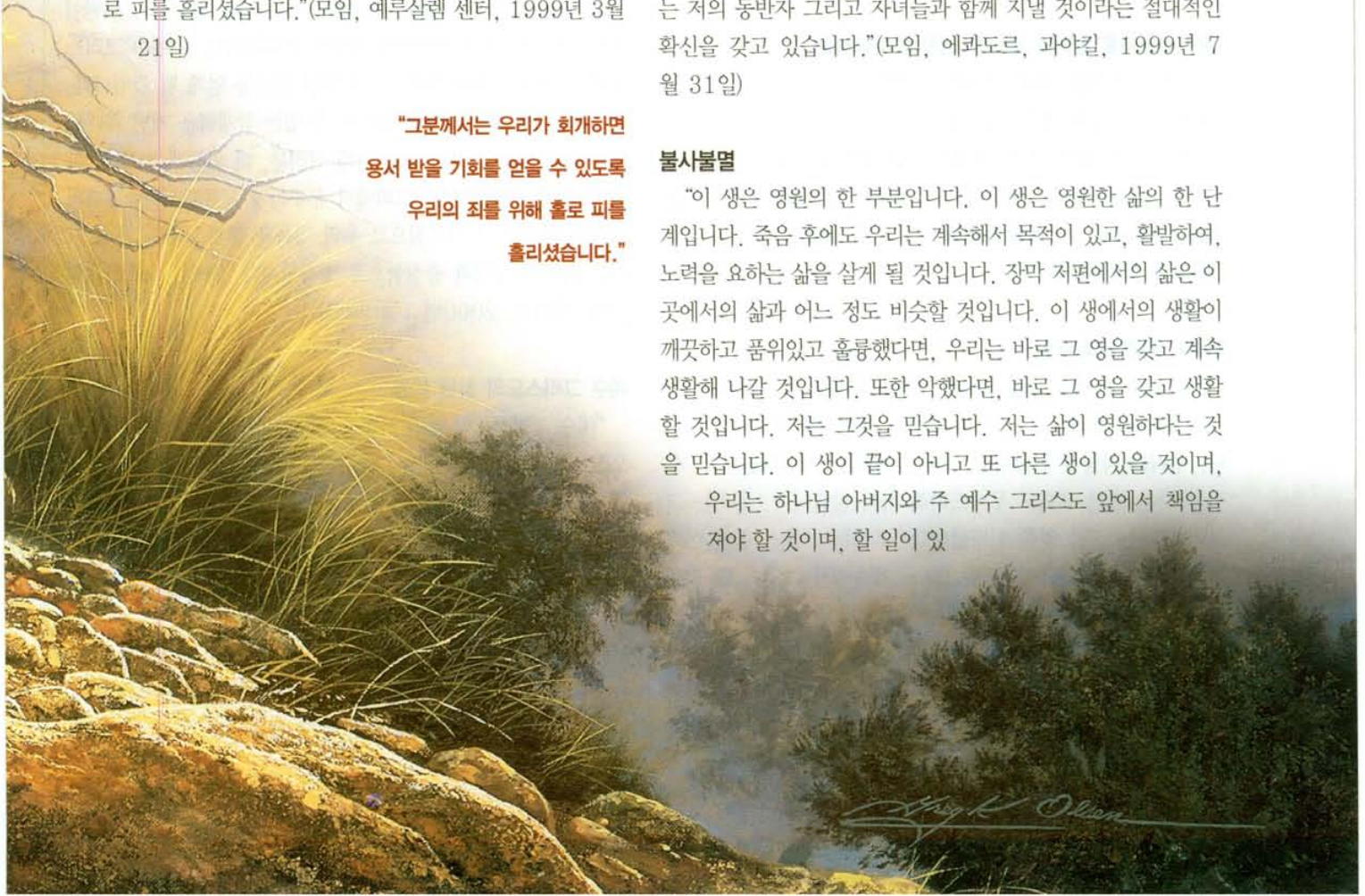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 저는 오늘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경전, 즉 성경, 물문경, 교리와 성약을 읽음으로써 꾸준히 신앙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품고 있는 신앙을 키워 가기를 바랍니다.”(모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1998년 4월 25일)

죽음 이후의 삶

“제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 속에, 제가 계속 살게 되고 선을 행할 것이며 사랑하는 저의 동반자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지낼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모임, 에콰도르, 과야킬, 1999년 7월 31일)

불사불멸

“이 생은 영원의 한 부분입니다. 이 생은 영원한 삶의 한 단계입니다. 죽음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목적이 있고, 활발하여, 노력을 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장막 저편에서의 삶은 이곳에서의 삶과 어느 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생활이 깨끗하고 품위있고 훌륭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영을 갖고 계속 생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악했다면, 바로 그 영을 갖고 생활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생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생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할 일이 있



Gordon B. Hinckley

을 것이며, 언젠가 우리는 모두 부활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제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저의 희망이고 신앙이며 간증입니다.”(1997년 11월 7일자, El Pais 신문, Ignacio Carrion과의 회견)

죽은 자를 위한 침례

“12살이 되면 여러분은 주님의 집에 가서 살아 있는 대리인으로서 죽은 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소년과 소녀로서, 한때 위대한 남자 혹은 여자로 지상에 살았으나 지금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없이는 발전해 나갈 힘이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 대리인이 되어 저 세상으로 가신 분들에게 훌륭한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가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침례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고 기회이며 책임입니다.”(모임, 에과도르, 과야킬, 1999년 7월 31일)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성전 추천서를 지니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성전 추천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 여러분이 성전에 자주 가든 자주 가지 않든,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고 추천서를 언제나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것은 말일성도로서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모임, 팜, 2000년 1월 31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교회도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존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향상시키려 노력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도움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2000년 3월 8일, National Press Club에서 전한 말씀)

평온하고 엄숙한 신앙

“여러분이 나아가서 직업인이 되고,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줄 신앙, 평온하고 엄숙한 신앙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십 리를 동행하는 교훈과 탕자의 교훈,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 위대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교훈이 계속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영적인 모임, 브리감 영 대학교 동창회, 2000년 9월 12일)

더 의로워지기 위해 더욱 굳게 결심하십시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서 더 의로워지기 위해 더욱 굳게 결심하고 좀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가치있게 여기도록 하십시오. 회원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대해 강하고 감동적인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더 의롭게 됩시다. 복음에 따라 생활합시다. 교회에서 분주하게 활동합시다. 교회의 교리를 배우고 그 가르침으로 우리 영육을 살찌웁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앙과 충실함으로 성장합시다.”(모임, 오스트레일리아, 케언스, 2000년 1월 26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결코 편협로나, 독선로나, 오만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형제애, 우정, 다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 존경, 친절, 사랑을 가르칩니다.”(영적인 모임, 브리감 영 대학교 동창회, 2000년 9월 12일)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음을 압니다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이 사업에 대해 간증을 갖고 있다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이 참되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두를 위해 커다란 희생 속에서 돌아가시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확실히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모임, 태국 방콕, 2000년 6월 13일)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신앙의 햇살이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이 힘과 능력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우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서가 여러분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이해를 넓혀 주기를 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우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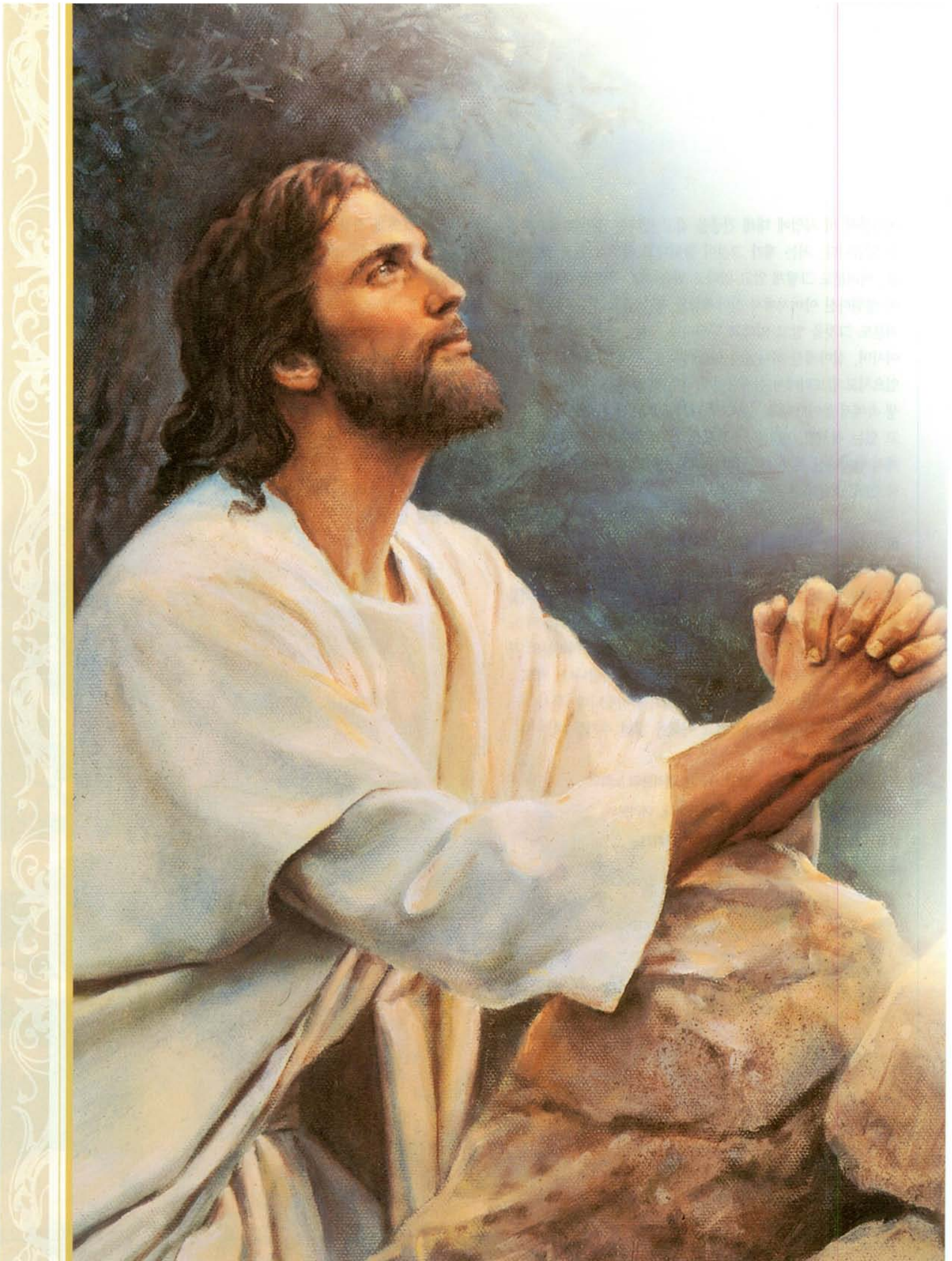
랍니다. 서로에게 진실하고 충실하며, 세월이 여러분에게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 곧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오는 평안을 가져다주시기를 바랍니다.”(영적인 모임, 브리감 영 대학 동창회, 2000년 9월 12일)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주님께서서는 그의 종이 말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8:4)

2. 여러분이 가르칠, 개인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인용문들을 선정한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속죄에 대한 간증



개인적으로 속죄를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더 큰 감사와 사랑과 권세를 지니고 속죄에 관해 가르치며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선교사 토론의 간결함은 회복이라는 수확의 광주리가 참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담은 수확의 광주리 비유를 사용하여, 남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에는 “후회” 주라고 요청하십니다.(누가복음 6:38 참조) 우리는 그 놀라운 수확의 광주리에 관해 몇 가지 핵심이 되는 주요 진리와 개념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강하게 불어넣기 위해서는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속성을 지닌 위대한 것들이 아주 짧은 가르침의 순간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에 영이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회원이나 전임 선교사로서 복음을 나눌 때, 우리의 친구와 구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과 간증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개념을 가르칠 때에, 그 강력한 교리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의 깊은 확신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속죄의 충분한 축복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속죄를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더 큰 감사와 사랑과 권세를 지니고 속죄에 관해 가르치며 간증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가능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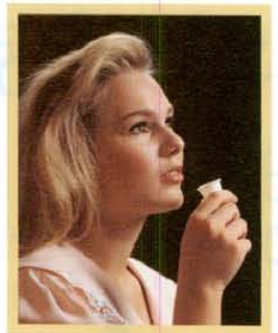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속죄는 온 인류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속죄는 보편적인 부활을 가져왔으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회개하고 용서 받는 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로마서 3:23)기 때문에, 회개의 필요성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자비롭게도 그리스도의 속죄는 태만의 작은 죄나 중대한 범법이나 온갖 형태의 죄에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돌이켜야 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이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의 repentance(회개)로 번역된 희랍어는 “마음의 변화, 즉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에 대해 전혀 때문지 않은 말은 시각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Bible Dictionary, “Repentance”, 760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할 때까지 생각을 바꾸고, 그런 후에 행동까지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마음”(고린도전서 2:16)으로 우리가 실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우리 각자가 참된 안도와 용서, 그리고 참된 발전

침

례를 받은 후에는 속죄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리고 침례 받을 때 맺은 성약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성약들을 새롭게 하면서 정구적으로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을 위해 속죄에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부활이라는 엄청난고도 무제한적인 은사를 대가없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영생이라는 그리스도의 더 큰 은사를 얻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입법자로서

이 위대한 은사를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니파이삼서 11:31~41; 15:9~10; 27:13~21 참조) 그러므로 영생을 향한 개인적인 발전은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모사야서 3:19 참조)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충실하고 끝까지 견



된다면, 우리의 뜻은 결국 아버지의 뜻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모사이사서 15:7, 니파이삼서 11:11 참조)

하지만 그러한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버”(앨마서 22:18)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느 누가 그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앨마서 36:18~20 참조)

복음을 나눠야 하는 필요성의 기저에 그같은 절박함이 있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1907~1995)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개심을 나타내는 훌륭한 척도는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에 대한 충실한 간증을 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계명을 주어 너희 죄를 용서하리니, 곧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일을 온 세상 사람에게 간증할 때에 너희 마음 속에 엄숙함과 기도의 정신을 굳게 세워 잃지 않게 하라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4:61)” (“The Atonement and Missionary Work”[신임 선교부장 세미나, 1994년 6월 21일, 2쪽]

그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일을 온 세상 사람에게 간증할 때에 ... 굳게 세워”(교리와 성약 84:61)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서는 우리의 굳건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는 침례의 효력을 필요로 합니다. 즉, 침례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날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볼모로 잡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자비로운 일입니까!

깨끗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침례의

효력을 통해서,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를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는 성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은 또한 기억의 연단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간결한 교훈들을 가르쳐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복음 진리에 관해 우리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따금씩 오는 영향력이 아니라, 한결같은 동반자로서의 성신이 필요합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는 속죄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리고 침례 받을 때 맺은 성약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성약들을 새롭게 하면서 정규적으로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강화하는 이러한 과정은 예수님의 속죄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동안 자신의 발전을 위해 정규적으로 속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꾸준한 발전의 길, 곧 제자가 되는 분명한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더욱 의롭게 될 것이며,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을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렀으나 곧 찬양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경배하는 단계로,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꾸준한 발전을 통해 더욱 그분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비록 중대한 범법에 관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항상 회개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계명을 주어 너희 죄를 용서하리니,
곧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일은 온
세상 사람에게 간증할 때에 너희 마음
속에 엄숙함과 기도의 정신을 굳게
세워 잃지 않게 하라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속성을 발전시킴

범법에서 돌이키고, 더욱 사랑하고 더
욱 온유하고 인내하며, 그리고 더욱더 순
종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남게 된 죄들
은 행해야 했으나 지나쳐 버렸던, 잘 보
이지 않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들 또한 버려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속
성들을 명시해 주셨는데, 신앙, 덕성, 지
식, 절제 및 인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분께서는 신앙, 소망 및 사랑, 그리고 하
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속성
들을 추가로 설명해 주셨으며, 이러한 것
들이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
한 자격을 갖추게 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4:5~7; 베드로후서
1:4~8 참조) 우리가 이 위대한 주님의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러한 영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찾고, 구
하고, 두드러지는 권고를 받은 것은 놀
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이러
한 과정에서 속죄가 계속해서 우리 모두
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그분에게 나아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앨마서



5:34; 마태복음 11:28~30 참조) 그러
나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그분에
게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분께서는 우
리의 발전을 돕기 위하여, 때로는 고통을
겪게 하시어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
약함을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
다.(이터서 12:27 참조)

우리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시
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봉사하도록 부
름을 받더라도, 경전이 말하고 있는 바
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만족해
야 합니다.(앨마서 29:3, 6 참조) 그러
나 우리가 보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 나아가도
록 박차를 가하기 위해 주신 불만족도 감
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
은 기쁨함, 인내, 순종, 온유 또는 사랑
과 더불어 성신의 꾸준한 도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혼 관계, 선교사 동반
자 관계, 그 외의 다른 여러 관계에서,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성급하거나, 마
땅히 해야 하는 것보다 덜 사랑할 때,
좀더 회개하도록 속삭여 주십니다. 하지
만 그러한 과정은 아무런 값없이 주어지
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그 값을 치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로해 줄 성신이 또한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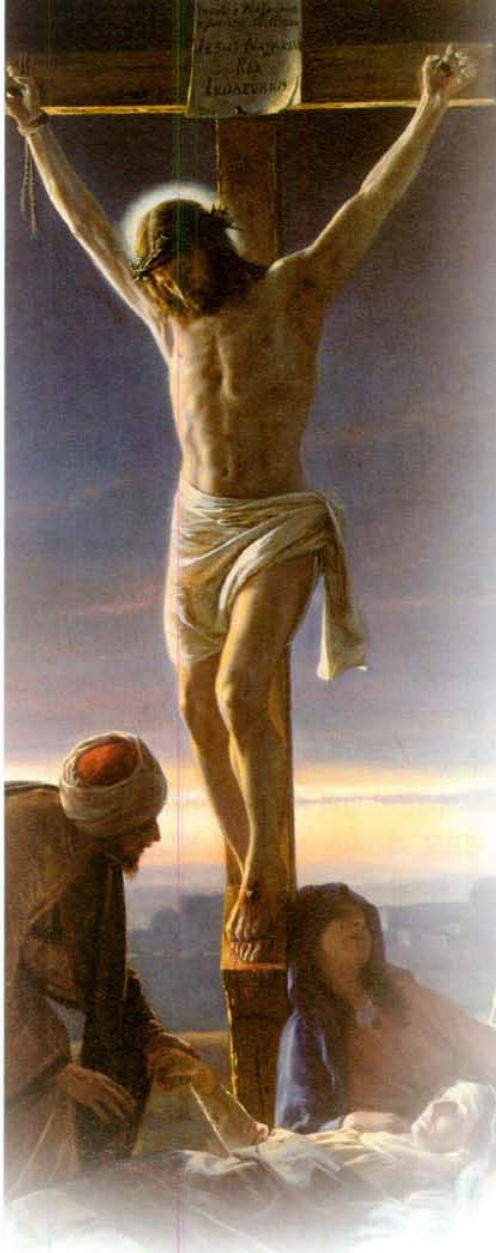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자비롭게도, 우리가 용서
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
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성신을 통해
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니
파이어서 4:28)지는 생활로 인해 절망하
거나 또는 그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
다. 참으로 우리는 “희망의 밝은 빛을 품
고, ... 힘차게 나아”(니파이어서 31:20)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의 부활

그리스도와 같은 덕성을 더욱 발전시
키는 일의 중요성에 관해 우리에게 상기
시켜 주는 어떤 것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림시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별들이 극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사
람들의 해석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설명과 외침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 될 것이며, 그분의 많은 속성들 가
운데 두 가지를 찬양하는 말이 될 것이
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는 그의 선하
심과 자애로운 친절입니다.(교리와 성약
133:52 참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선함과 자
애로운 친절에 있어서도 그분처럼 되도
록 노력해야 합니다.(니파이삼서 27:27
참조)

재림 때에 예수께서는 가시관과 무서
운 채찍질, 십자가에 달리셨던 일, 쓸개
탄 포도주를 견디셨던 일을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무시
무시한 외로움이 담긴 다음과 같은 말씀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과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증거하”(모세서 7:62)기 위해서입니다.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요한복음 3:16)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속죄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부활의 은사가 온 인류에게 대가없이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곧 영생의 축복이 기꺼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또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교리와 성약 6:13, 14:7 참조)

역경

우리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역경으로 인해 분투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여러분과 저는 경험에 경험을 거듭하며, 위대한 속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저의 경우, 몇 가지 성구가 저와 특별한 관련이 있고, 또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는 그들에게 큰 소리로 읽게 할 때, 이러한 구절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지극히 훌륭한 구절이 되어 왔는데, 특히 아픈 것에 진력이 난 용감한 사람들에게 더욱 그러했습니다.

먼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참으로 뛰어난 니파이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으나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하나이다.”(니파이일서 11:17)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굳이 모든 것의 의미를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냐민 왕이 말한 것처럼,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 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함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모사이아서 3:19) 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순종심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냐민 왕이 사용한 내리시는 이라는 말은 개인에게 맞게 재단된 난관들과 훈련들을 암시하는데, 이러한 난관은 우리에게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개별적으로 완벽한 동정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견디어 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그는 그의 백성을 얻어 맨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치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앨마서 7:11~12)습니다.

을 인용하실 것입니다. “또 주의 음성이 들리리니,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교리와 성약 133:50, 또한 이사야 63:3 참조)

속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점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회복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실제로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것이며, 그것들은 고대에 에녹에게 주어진 다음의 예언, 곧 “또 의를 하늘에서 내려 보낼 것이요, 땅에서 진리를 내보”낼 것이라는

예수께서는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동정심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속죄의 축복

요약하여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너무도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해방을 가져다주는 죄 사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죄는 물몬경에서, 예수님과, 속죄와,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회개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한 중요한 개인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앨마서 34:15~17 참조) 그와 달리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애써 회개할 이유가 뭘니까?”라고 잘못 생각할 것입니다. 경전에서 “절망은 죄로 말미암는도다.”(모로나이서 10:22)라고 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속죄는 우리가 상실과 고통과 슬픔과 실망에 빠져 있을 때에라도, 우리에게 “희망의 밝은 빛”(니파이이서 31:20)을 가져다줍니다.

속죄의 축복에서 중심이 되는 영적인 순종은 멜리사 하웨즈의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 소녀가 가족들과 함께 드린 기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멜리사는 겨우 아홉 살이었고 아버지는 43세였습니다. 그 소녀의 어머니가 제게 전해 준 다음과 같은 멜리사 하웨즈의 이기심없는 간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데

려갈 필요가 있으시고 또 저희보다 아버지를 더 필요로 하시면 아버지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저희는 아버지를 원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크리스티 하웨즈의 편지, 1998년 2월 25일)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속죄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대신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속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갖고 계신 사랑의 원대한 표현으로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대해 그분들이 갖고 계신 개인적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의 영향력

우리는 우리가 지닐 수도 있는 어떠한 가르침의 능력이나 기술을 능가하여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영의 권세를 결코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러한 일은 앨마에게 극도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가 기억해 낸 것이 무엇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속죄에 관한 부친의 말씀을 기억해 냈다고 언급하며 “여기에 생각이”(앨마서 36:17~18 참조)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영은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간증을 전해 준 사람들도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들의 정신과 마음이 그것들을 이해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말씀들은 속죄와 같이 왕국의 심오한 교리와 관계가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점증된 가르침을 보여주는 또다른 경우

로, 니파이인 젊은 용사들의 어머니들은 그 아들들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특별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용사들이 어머니들처럼 영적으로 성숙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극적인 약속은 그들을 지켜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친들에게서 이를 아셨다는 것을 [그들이] 의심하지 않”(앨마서 56:48)이었다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지시 아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중 몇몇은 속죄 및 회복된 복음에 관한 여러분의 말에 담긴 권세를 느낄 것이며, 또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앨마의 표현을 빌자면, 이 사람들은 “말을 들을 만큼 준비가 되어”(앨마서 32:6)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속죄

저는 여러분에게 위대하고 영화로운 속죄의 영광과 실제성에 관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예수께서 견디어 내신 그 인내와, 만물을 아시기 위해 만물보다 낮아지신 것에 대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저는 장자요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기뻐하시는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겪으신 모든 고통을 지켜 보면서 경험하신 모든 것에 대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는 그러한 거룩한 동정심과,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참고 경험하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겻세마네와 갈보리에서 속죄를 이루시면서, 참으로 자신을 바쳐 인간을 위한 불시불멸의 문을 여시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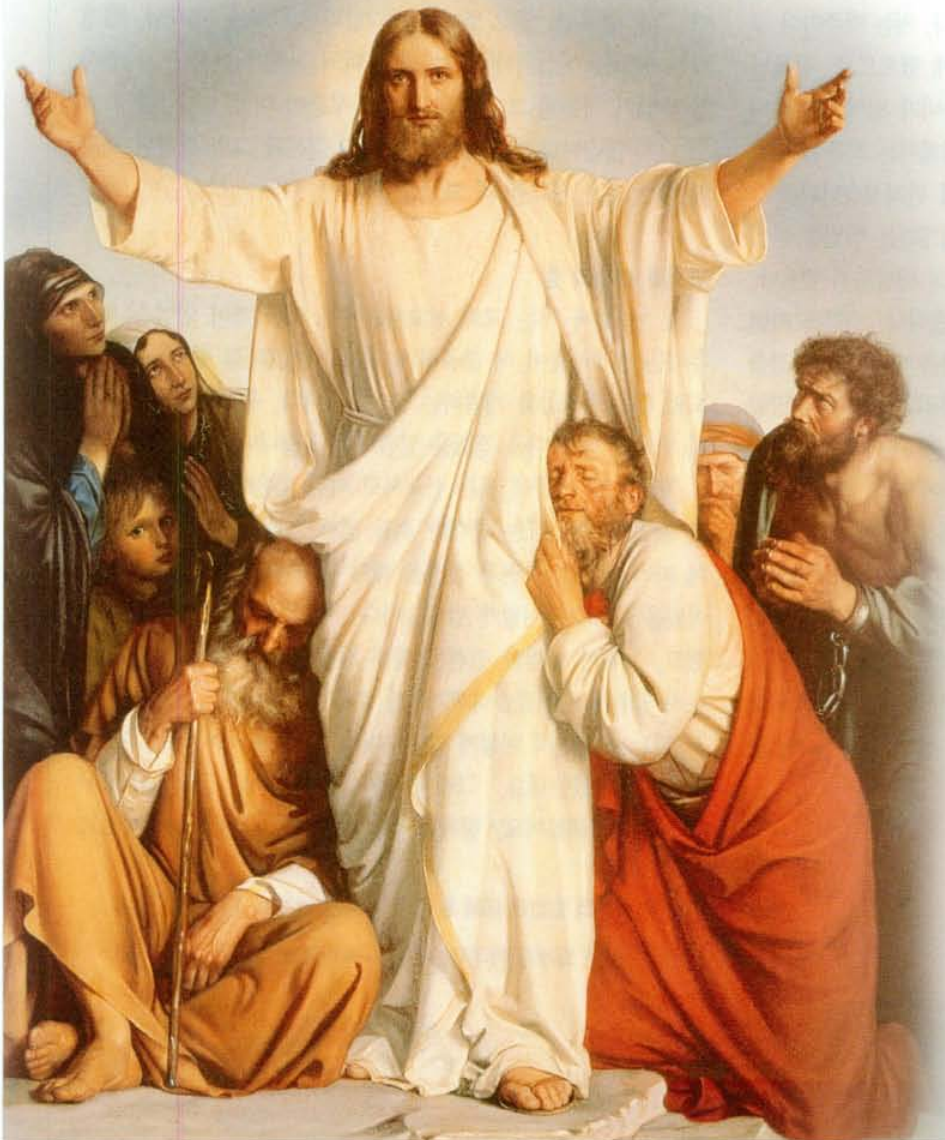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9:19 참조) 이제 위대한 속죄의 축복을 구하는 일은 필멸의 존재인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해가 지나 세월이 갈수록 성장할 것입니다. 결코 그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전은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33:52 참조)

저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속죄에 대해 그분에게 크나큰 찬양을 드립니다. 또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어 것처럼 값비싼 대가를 치른 그 위대한 속죄의 축복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하고, 우리의 봉사를 통

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다른 것으로 죄 값을 갚을 길 없”(“저 멀리 예루살렘 성”, 찬송가 112장)입니다. □

1999년 8월 29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교회 위성 방송을 통해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에 관해 하신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해가 지나 세월이 갈수록 성장할 것입니다. 결코 그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전은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제이 이 젠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20년 전에 저의 감독님은 제 성전 추천서를 위한 접견을 하셨습니다. 스테이크장단이었던 저는 성전 추천서를 위한 접견에서 하는 질문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그 질문들을 다른 회원들에게 했으므로, 감독님이 저에게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질문들에 이어, 감독님께서서는 복음에 대한 저의 이해에 관해 추가의 질문을 갑작스럽게 던지셨습니다.

감독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회개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맨 처음에는 “예, 물론 알고 있죠.”라고 대답하려 했으나, 저는 잠시 멈추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대답은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대역섯 가지의 단어(인식, 죄책감, 보상, 개심, 결심 등)는 답으로 적합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당시 그것들은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 말들은 너무 도식적이고 진부하게 느껴졌습

니다.

물론 회개에 관한 훌륭한 교리와 원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즉시 그 교리들을 저의 대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다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감독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형제님, 회개하는 방법을 아십니까?”라는 한 마디의 질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접견의 나머지 부분이 어땠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질문과 그와 관련된 교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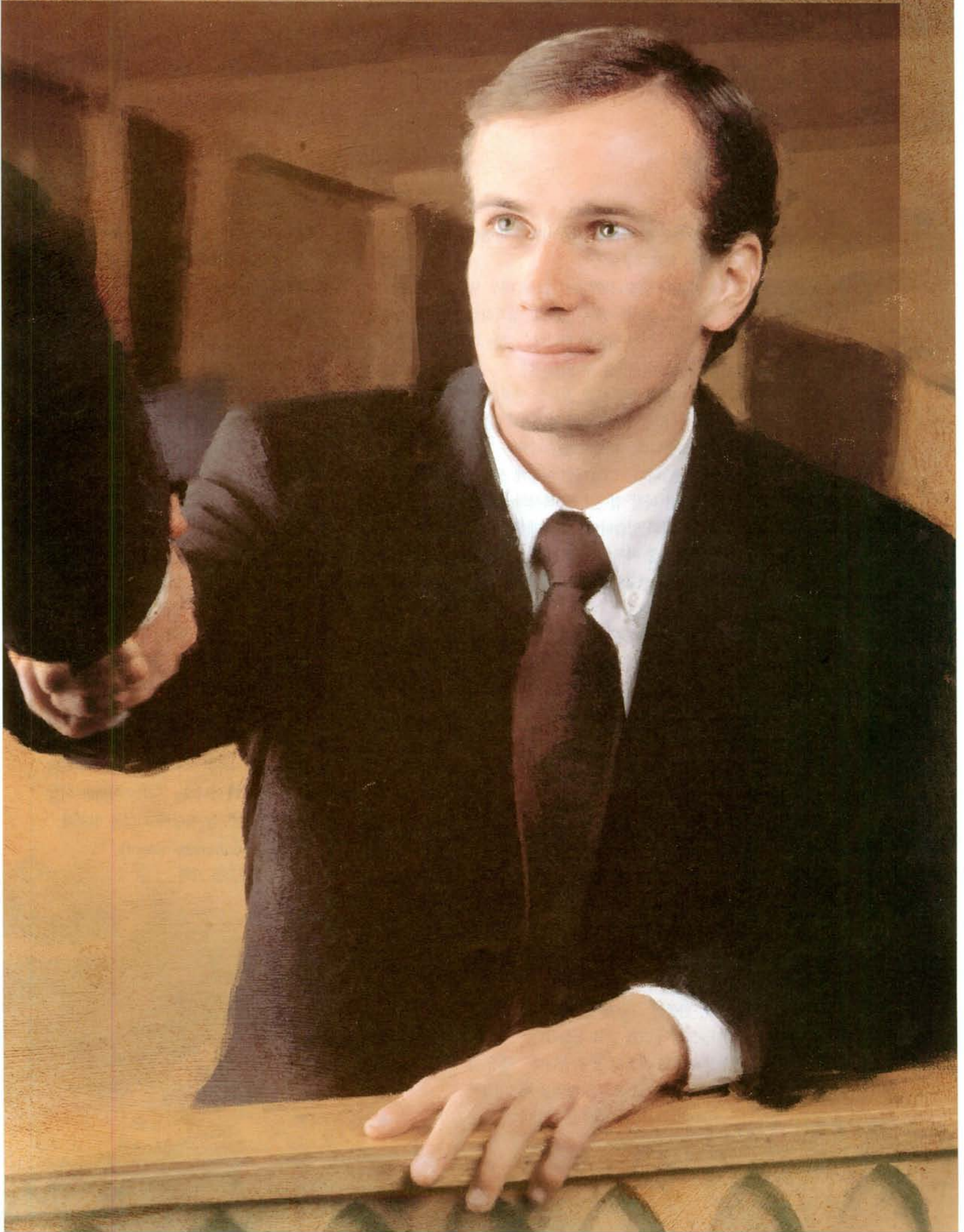
회개와 속죄의 힘

몇 년 전에 저는 교회 선교사과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더 훌륭하게 되고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자료들을 개발하는 중이었습니다. 총관리 직원 한 분이 회개에 대한 다음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일 년 전쯤에 저는 선교사로 나갈 젊은이와 접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시의 정책에 따라 총관리 직원과 접견을 해야 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중대한 죄를 범했고, 그래서 이러한 접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안 해 본 것 없이 모두 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형제님께서서는 ...’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범법에 대해 용서 받을 수는 있지만, 단지 어떤 일을 중단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또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잖습니까? 다 해봤다구요.’

“제가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 그는 매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셀 수 없었다면 한 번 세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는 다시 매우 냉소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 하고 저는 다른 면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다 해 보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바약도 했습니까? ‘네.’ 하고 그는 오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했습니까? ‘전 나갈 겁니다. 축복사의 축복에 저는 선교사로 나갈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회개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 년 동안 이런 일들 중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형제님, 미안하지만, 형제님은 선교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님을 깨끗하고, 건전하고, 이러한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젊은이들과 함께 내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형제님을 선교사로 내보내 과거에 대한 자랑을 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님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잠시 중단한 것 뿐입니다.

“‘형제님이 살아가면서 언젠가 겻세마네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형제님은 죄가 무엇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겻세마네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만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 중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죄에 대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신의 회개에 대해 웃고, 농담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형제님은 선교사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으며, 한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울어본 것은 다섯 살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계명을 어기도록 처음으로 유혹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울었다면 형제님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형제의 감독님과 스테이크장님께 그가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6개월 후에 그 총관리 역원은 저녁에 개최되는 강연회에서 말씀을 하기 위해 다시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많은 독신 성인들이 그와 악수를 나누기 위해 줄지어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다가 그는 전에 접견을 한 그 젊은이가 서너 사람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총관리 역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순간 우리가 접견을 했던 당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웃음과 오만한 태도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빈정거렸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곧 그는 제 앞에 섰습니다. 연단에 있던 제가 그와 악수를 나누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저는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의 용모에서는 거의 거룩한 광채가 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갔었습니다. 저는 겻세마네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압니다. 형제님의 얼굴이 말해 주는군요.’

“우리는 자신의 범법에 대해 용서 받을 수는 있지만, 단지 어떤 일을 중단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세주와 용서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이 젊은이는 그의 죄를 영원한 세상까지 가져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단지 이 이유만으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본 제이 페더스토운, Conference Report 에서 인용, 1974년 스웨덴 스톡홀름 지역 대회, 71~73쪽)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공덕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회개의 조건들

“회개의 조건”(“회개의 법”—힐라맨서 5:11; “회개의 뜻”—힐라맨서 14:11; 교리와 성약 18:12)이란 말에는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한 결과, 이 조건들은 또한 회개의 과정을 설명하는 대여섯 가지 단어들에 대한 선행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들은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것들이지만, 다음의 조건들이 그 개념들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 첫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식과 신성한 속성과 완전함의 총만함에 이른 분이십니다. 회개를 시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우리가 그분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회개와 하나님에 관한 매우 통찰력있는 견해를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당겨질 때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압력은 회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83쪽)

■ 우리는 타락했고, 필멸의 육신을 갖고 있으며,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필멸의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분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된다는 교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올 것이며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은 언젠가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날은 올 것입니다.

■ 회개의 또다른 조건 혹은 선행 조건은 깨끗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니파이일서 10:21; 15:34; 앨마서 7:21; 40:26; 힐라맨서 8:25 참조) 여러분은 감독에게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부모와 친구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살다가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죽게 되면, 여러분은 깨끗하지 않으며—깨끗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공덕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됩니다.(니파이일서 2:8 참조)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마음을 돌립니다. 저는 희망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복음에는 희망이 있으며,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적, 깨끗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분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 곧고 좁은 길에 머물러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1998년 5월 6일 말일성도 Business College에서 전한 영적인 말씀 중에서

“희망의 밝은 빛”

십 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
십 스웰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역경으로 인해 분투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경험에 경험을 거듭하며, 위대한 속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개별적으로 완벽한 동정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견디어 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이번 호, 11쪽 참조)
☛ 지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슬픔들은 때로 감당



하기 힘든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세주와 속죄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들이 보여주듯이, 시련과 역경은—그것이 육체적 고통의 형태이든 진리를 찾아야 하는 아픈 필요이든

간에—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 그분의 평안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맥스웰 장로는 이

렇게 가르쳤다. “속죄는 ... 우리가 상실과 고통과 슬픔과 실망에 빠져 있을 때에라도, 우리에게 “희망의 밝은 빛”(니파이서서 31:20)을 가져다줍니다.”(이번 호, 12

쪽 참조)

모든 것을 고침

캐서린 매튜스 파비아

가 족과 함께 부활절을 보낸 것은 4년 전의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부활절 방학 및 가족과 함께 할 부활절 활동들을 고대했다.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금요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머니가 계획하고 계신 가족 모임에 대해 여쭙어 보았다.

어머니는 야채를 다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모두들 후수에 다시 가고 싶어 하는구나. 하지만 작년에 여섯 시간 동안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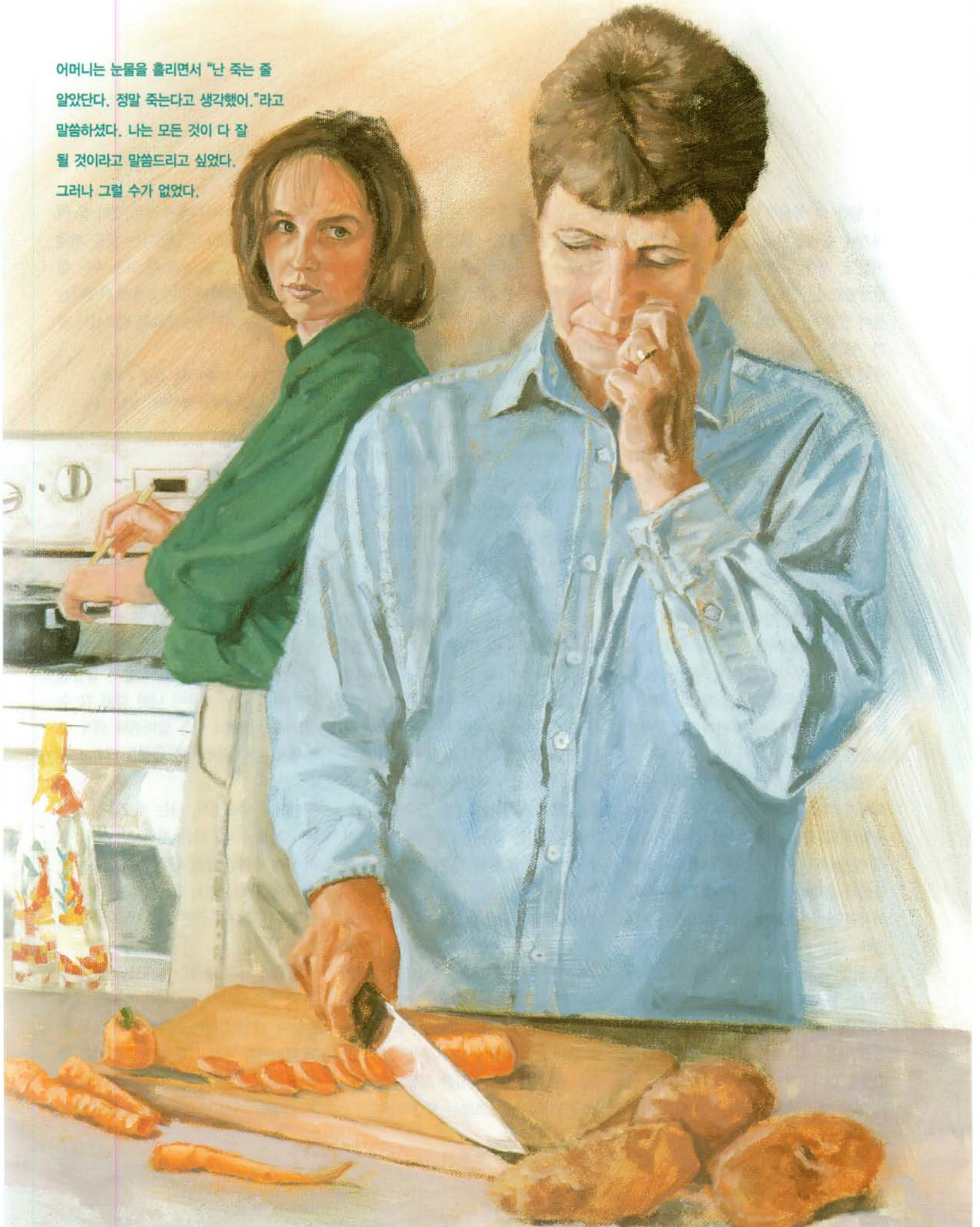
할 때 ...” 칼질 소리가 멈추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흘렀으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다. “난 죽는 줄 알았단다.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어.”

온화하고 인내심 강한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실 때 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의 들쭉이는 어깨가 진정될 때까지 나는 어머

니를 껴안고 있었다. 나는 의사가 어머니의 병을 알아내어, 약을 지어 주고, 병을 다 고쳐 줄 거라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병을 앓으셨던 해 내내, 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거부했다.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소망했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약해지고 고통스러워 하셨다. 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난 죽는 줄
알았단다.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저 일만 더 열심히 하셨는데, 밤에 잠을 자거나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통증은 어머니의 심장 부근에서 발생했으며, 안정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몸이 떨렸다. 곧 어두운 눈 언저리와 피로가 가득한 눈에 어머니가 겪는 고통이 역력히 나타났다.

고통과 함께 이내 낙담이 뒤따랐다. 일년 내내 의사들을 찾아 다니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지만 전문가들조차도 어머니의 심장 부근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통증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고, 어머니는 낙담하셨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의사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정상적인 어머니는 밤에 마루를 서성인다거나, 청소를 하다 말고 서서 흐느껴 우시지 않았다. 평생 불평 한번 안 하시고 온갖 고난을 겪으신 어머니는 평소대로라면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절 이틀 전에 나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 앞에서 우리 모두는 무력했다. 오랜 동안의 훈련과 경험, 지식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아버지조차 상황을 호전시킬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가 없었다. 쉬시면 고통이 더했으므로 어머니는 대부분의 집안 일을 손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을 하셨다.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탓에, 어머니는 고통

을 홀로 겪고 계시는 것 같았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갔다.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금요일 저녁에 어머니가 울먹이며 높은 음색의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죽는 줄 알았단다”라는 섬뜩한 말을 기억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연단을 향해 걸어가셨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베냐민 왕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며 육신의 고통과 주림과 갈증을 겪으며, ... 인간이 감당치 못할 온갖 고난을 겪으’(모사이사서 3:7)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긴긴 밤들을 보냈지만 외롭지 않았 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극한 상황에서도, 구세주께서는 저의 친구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킨 것 같이 우리를 슬픔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간증을 들었을 때, 머리 속에 팍 차 있던 어머니와 나 자신에 대한 생각들은 새로운 고통의 장면으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육체적인 고통과 나의 감정적인 고통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갯세마네 동산의 구세주께서 고통을 겪으실 때에 극심한 고통으로 모든 땀 구멍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이였다.

나는 그때 어머니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고칠 수는 없었지만, 구세주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시는 어머니는 위로를 받으셨던 것이다.

캐서린 매튜스 파비아는 유태 프로보 에지먼트 북 스테이크 에지먼트 제15와드 회원이다.

어둠으로부터의 구출

헤리 카스트로 벨리스

사고는 칠레 산티아고 남쪽에 있는 마을에서 축구 경기를 끝내고 집으로 갈 때 일어났다. 동생은 그 중 한 팀의 선수였으며, 부모님들은 동생을 기다리셨다. 그동안 나는 자전거를 타고 먼저 출발했다. 여덟 살 된 사촌이 나와 같이 갈 수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앞바퀴와 의자 사이에 있는 봉 위에 사촌 동생을 태우고 길을 떠났다.

페달을 밟으면서,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 전날 밤, 다른 지역 경기에서 우리 팀이 승리한 것을 축하한 후에 나는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열여덟 살의 나는 내 인생에서 그다지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바람이 계속 얼굴을 향해 불어오자 사촌 동생은 불안정한 자세로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렇게 하다가 그만 그의 한쪽 발이 타이어나와 자전거 틀 사이에 끼이고 말았다. 자전거는 앞으로 곤두박질쳤으며 나의 얼굴은 거친 아스팔트길에 부딪혔다.

**갑자기 내 다른 한쪽 편에서 동생이 나를
어둠으로부터 빛이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을 만져보니, 코가 너무 심하게 다쳐
고칠 수도 없을 것 같았다.

다행히 사촌 동생은 괜찮았다. 곧 부모
님이 도착하고, 뒤이어 경찰이, 그리고 마
침내 구급차가 왔다. 나는 응급실로 실려
가 코의 일부를 꿰맸으며 이마에는 약간
의 피부를 이식했다. 여러 시간 동안 치료
를 받고 나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은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심한 통증
을 느꼈다.

다음날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졌다. 결
국 통증에 지쳐 나는 잠이 들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가슴에 팔짱을 끼고 침대
에 누워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
다. 사실 그것이 내게는 가장 편안한 자세
였다. 그리고 짙은 이듬의 안개를 보았는
데, 어떤 손이 나를 그쪽으로 잡아끄는 것
을 느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웠으며 거기
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갑자기 그때 다른 한쪽 편에서 동생이
나를 어둠으로부터 빛이 있는 쪽으로 끌
어당기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도
움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절망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소리를 지르자 꿈에서
깨어났다. 아버지가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러자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으
며, 나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부모님 방으로 옮겨져 어머니 곁
에 누웠다. 어머니와 동생은 몇 달 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고, 나는 그 동안 어머니가 물론경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아왔다. 어머니
는 내가 다시 잠들 수 있도록 물론경을 읽
어 주셨다.

잠이 들자마자 나는 다시 같은 꿈을 꾸
었다. 이번에 동생이 내 팔을 잡아당겼을
때에는 비로소 그 중요한 의미를 이해했
다. 어둠은 타락한 상태의 세상을 의미했
으며, 동생은 복음과 희망찬 생활—바로
동생이 내게 주고 싶어 했던 생활을 의미
했다. 나는 내가 나쁜 습관에 빠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
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참된 것인지에
대해 전혀 기도도 해 보지 않았다. 그 순
간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침례를 받
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어머니
도 우셨으며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

통증은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으며 어머

나는 선교사들에게 부탁하여 신권의 축복
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 후부터,
나는 좋아지기 시작했다. 회복되는 동안 침
례를 받겠다는 나의 소망은 더 강해졌다.

나는 다시 선교사 토론을 공부하기 시
작했고, 이번에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 복
음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았지만 내가
꾸었던 꿈은,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신권
의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
랑하시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
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 주었다. 침
례를 받던 날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중요
한 한 발을 내딛었다.

나는 참된 교회가 만일 존재한다면, 그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사고를 통해 나는 홀
륭한 선택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

헤리 카스트로 벨리스는 칠레 산티아고
푸엔테 알토 스테이크 푸엔테 알토 제1와드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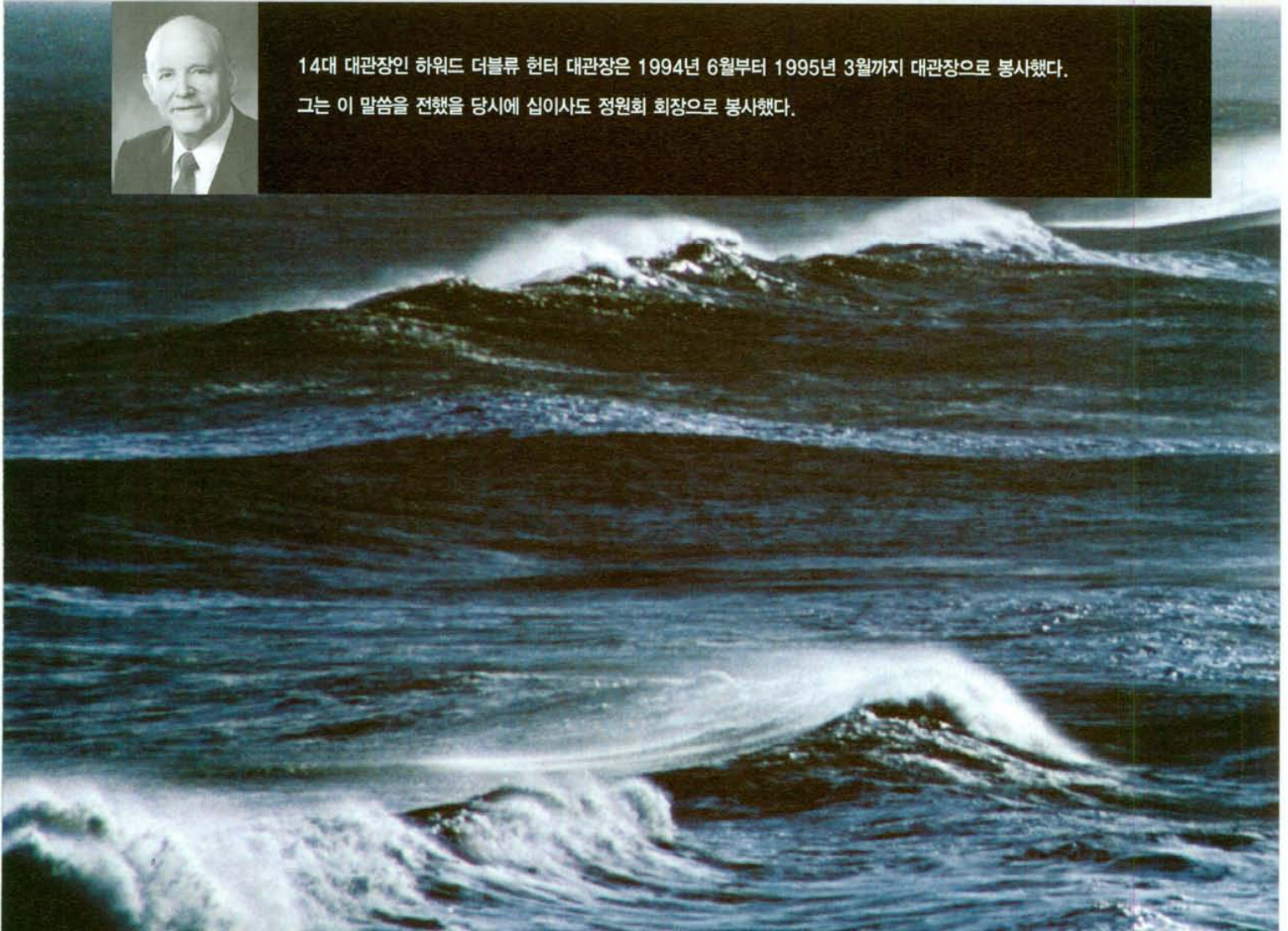
리아호나 고전

평화의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1907~1995)



14대 대관장인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은 1994년 6월부터 1995년 3월까지 대관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이 말씀을 전했다. 당시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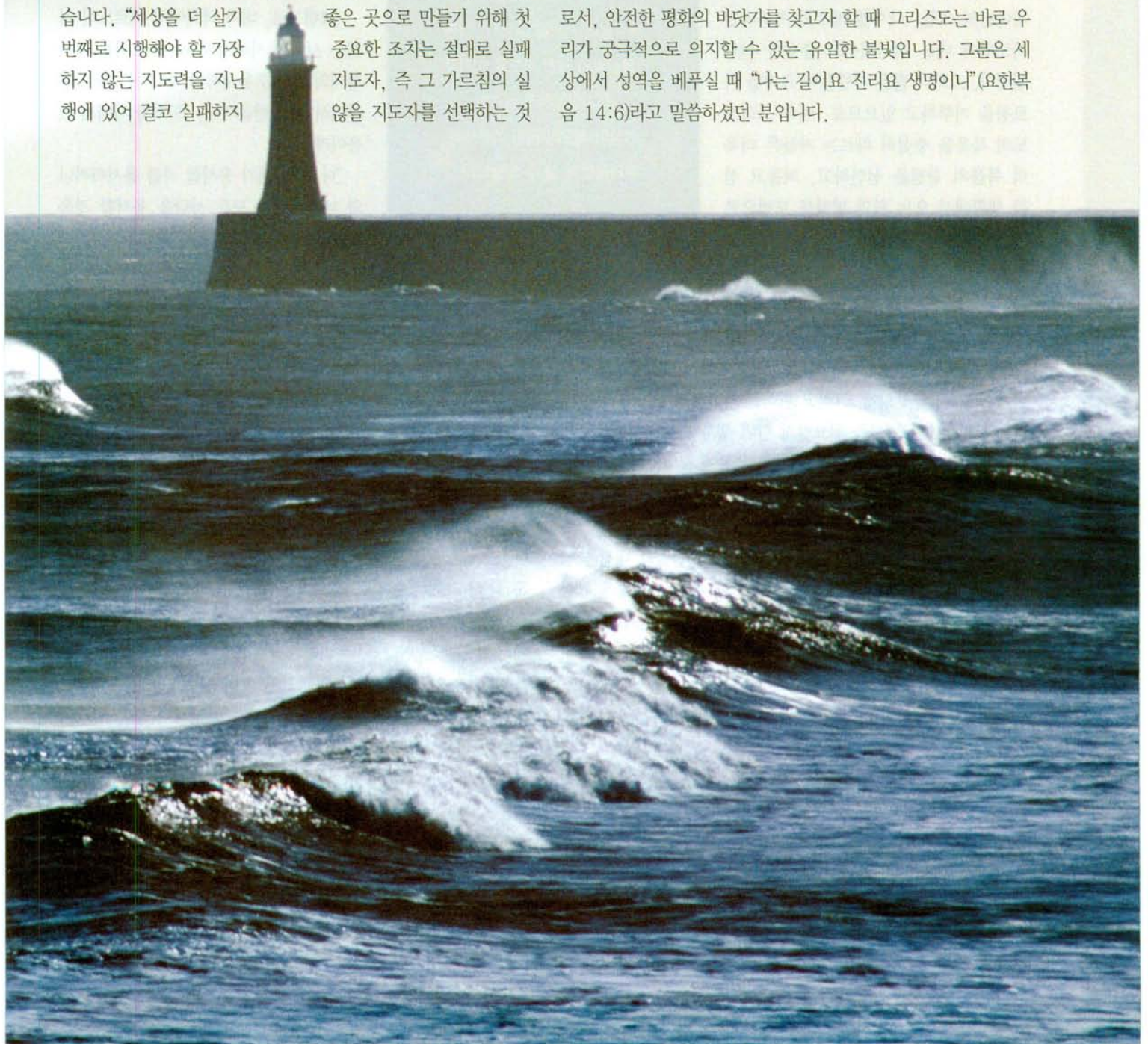
최 근 수년 동안 세상은 희망찬 발전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곳에는 다툼과 슬픔과 절망이 만연합니다. 매일 보도되는 국내 뉴스나 해외 뉴스가 자주 전해주는 분쟁과 고통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고 아프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 염려하고 돌보며, 확신과 평화의 원천이 모든 곳에서 증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평화와 확신을 추구하는 것에 관해, 과거의 어느 위대한 지도자가 한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시행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조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지도력을 지닌 행에 있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이다. 그 지도자는 폭풍이 몰아치는 어떤 불확실성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풍파를 헤치고 평화의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Man May Know for Himself* [1967], 407쪽)

그러한 인도의 손길을 지니신 분은 우주에 오직 한 분 계십니다.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자 꺼지지 않는 등대인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자 생명이며, 한 예언자가 묘사한 것처럼 “참으로 끝없는 빛이라 결코 어두워지지 아니”(모사이사서 16:9)합니다.

우리가 개개의 남자 혹은 여자, 가족, 지역 사회, 또는 국가로서, 안전한 평화의 바닷가를 찾고자 할 때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불빛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4:6)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불신앙의 세찬 파도를 이기고
 의기양양하게 걸으며
 의심의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
 두려움없이 설 수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세대와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에서도처럼 이 세대에도 우리에게 가장 철저히 요구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실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는 자들은 더욱 더 복음의 참됨을 선언하고, 의롭고 선한 생활에서 오는 힘과 평화를 모범으로써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 예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

이 하나의 권고가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가 속한 지역 사회에, 그리고 위대한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이지만,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과 가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참한 과업보다는 훨씬 받아들이기 쉬운 도전입니다.

기분이 상하고, 오해받으며, 부당하거나 불친절한 대접을 받았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승진을 놓쳤을 때, 거짓 고소를 당하거나 우리 마음의 동기를 부당하게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맞추어놓을까? 훨씬 더 큰 부대를 보내 응수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맞서는 과거의 신앙으로 되돌아갑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길 중요한 기회들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기회마다 가르침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좀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일의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의 제자들이 서로 대적하여 기회를 노리며 마

음으로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심한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 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리와 성약 64:8~10)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생애와, 가르침을 행하는 모범으로 늘 확실한 약속이 따르는 많은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학식 있는 자와 무지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모두를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는 권능과 위엄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리고 지역 사회와 국가 조직으로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불신앙의 세찬 파도를 이기고 의기양양하게 걸으며 의심의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 두려움없이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Frederic W. Farrar, *The Life of Christ* [1994], 313 쪽 참조) 그러나 눈길을 돌리기는 매우 쉽고 이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으니만큼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그분에게서 눈길을 돌린다면, 우리를 도와 주고 구하실 수 있는 그분을 따르지 않고 끄적거리고 파괴적인 힘이 뿜어내는 맹렬함만을 바라본다면, 그럴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분쟁과 슬픔과 절망의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파도에 빠져 익사할 것 같고 깊은 바다가 우리 신앙의 배를 삼키려는 듯한 때 폭풍우와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마태복음 14:27)는 구세주의 부드러운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992년 10월 반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성신의 속삭임을 따름

다 음 내용을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과 함께 읽고, 질문과, 성구와,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토론한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왜 성신의 은사를 갖는 것이 필요한가?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니파이서서 32:5 “너희가 주의 길에 임하여 성신을 받으면 성신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 너희에게 보여 주시리니”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인수례에 의해 성신의 은사를 받은 말일성도들은 삶에서 거대한 골리앗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뿐 아니라 작은 일상사에서도 개인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의 교통”,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4쪽)

성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고리와 성약 8:2~3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를 인도하여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영이니라.”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그것은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내면으로 밀려오는 영적인 음성입니다.” (“불의 갈라진 혀”,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0쪽)

영의 속삭임을 느끼는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모로나이서 8:26 “죄사함을 받은 뒤에는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져서 이 온유함과 겸손해진 마음으로 인하여 성신이 임하시는 것이다. 이 성신이란 보혜사라,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나니, 성신으로 기도할진대 이 온전하신 사랑은 마지막이 되어”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얻고 지키고자 한다면 다음의 간단한 네 가지 사항을 좇아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 둘째, 복음을 연구하고 배우십시오

오, 셋째,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 죄를 회개하십시오. ... 넷째, 교회 안에서 봉사하십시오. (성도의 빛, 1980년 8월호, 5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며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의와 진리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며 앞서가는 성령의 동반보다 ... 우리 생애에 올 수 있는 더 큰 축복은 없다.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할 경우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 가진 이 인도의 권세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259쪽)

■ 이 놀라운 은사를 받고 제 삶에서 그것을 좀더 온전히 누리기 위해 저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



질 의 응답

가난한 사람이 이처럼 많은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답

부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이 필멸의 생에서 커다란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디모데전서 6:10)라고 말씀했습니

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농담한 적이 있습니다. 첫번째 말은 경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농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르노니, 가진 것이 없다 하여 구걸하는 자를 거절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저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주지 못하나, 내가 지닌 것이 있으면 주리로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노니, 너희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진대 죄가 없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정죄 받으리니, 너희가 갖지 못한 것을 탐하였으매 정죄 받음이 마땅하리로다.”(모시아야서 4:24~25)

중요한 것은 탐욕, 즉 돈에 대한 사랑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돈이 있을 때만큼 그것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갖고 이기적으로나 혹은 부정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돈이 없지만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의 악이 생겨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이룩해야 할,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온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니파이서서 1:3 참조)

부자가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물문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부유하



사진 출처: 크레이프 데이몬드

게 되면 때로 주님과 그의 계명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여기서 부유해져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잊고 교회를 뛰쳐나와 지옥으로 빠지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 백성들은 강탈, 폭행, 빈곤, 박해 등을 참을 수 있었고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느끼는 나의 두려움은 이들이 부에 대한 욕심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백성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로써 큰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Preston Nibley, *Brigham Young: The Man and His Work* [1936], 128쪽에서 인용)

영 대관장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부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하는 이유와 시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야 너희가 구하는 바 부를 얻을 것이요, 선행을 위하여 이를 좇으리니, 헐벗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살피 구제하게 되리라.”(야곱서 2:19)

궁핍한 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으며 감독이나 지부장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 부를 사용하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이로

써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를 아껴두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달란트를 땅에 묻은 악한 종처럼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마태복음 25:14~30 참조)

독자들의 대답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재물을 첫번째 우선 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면에서도 발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게으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식을 얻고 사회에서 유능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니지 않고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을 경우에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레나 멘도자,
아르헨티나 파라나 지방부,
아나클레토 메디나 지부

저는 부자들이 물문경을 읽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라타이 포노헤마,
텍사스 킹우드 스테이크,
험블 와드

물문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태도와 우선순위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 두는 사람들은 대체로 재산, 교만, 명성, 그리고 권력의 4중주가 빛어내는 세상적인 욕구에 집중합니다. 태도나 우선순위가 재산의 획득, 사용 또는 소유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태를 물질주의라고 부릅니다. ... “경전에서 이런 주제가 강조되는 것을 보면, 물질주의는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커다란 난관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물질주의의 추한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탐욕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 “사도 [바울]은 본질적으로 금전에 약한 어떤 것이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은 금전이 아니라 바로 금전에 대한 사랑입니다.”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Pure in Heart* [1988], 73~74, 78쪽)

된 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자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부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승영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로베르토 파올라 드 프레이타스
캄포스,
브라질 우베를란디아 스테이크,
코파카바나 와드

경전은 종종 부의 위험에 대해 경고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 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며 모든 부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거부 당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욥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충실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호세 아리엘 에스피놀라 올메도,
파라과이 페르난도 데 라 모라
스테이크,
페르난도 데 라 모라 와드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이며, 우리의 육신을 비롯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든, 전문적인 기술이든, 지식이나 봉사, 시간 혹은 단순한 미소이든 모든 부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밀리카 엠 팔레투아,
통가 하아파이 스테이크,
팡가이 와드

정직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얻는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후에, 재물을 적게 가진 사람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앙헬라 마르시아스
아센헤이머,
브라질 산토 앙헬로 지방부,
산타 로사 지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자신의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에벤에젤 크웨이 아보아,
가나 타코라디 스테이크,
음핀트신 와드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만 재물을 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들고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재물을 구해야 합니다.(야곱서 2:18-19 참조)



에두아르도 루이즈
멘데스 장로,
브라질 마세요 선교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부유해질 것입니다.



카를로스 알베르토 가르시아
장로,
콜로라도 덴버 북 선교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후하게 바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재물을 적게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교리와 성약 14: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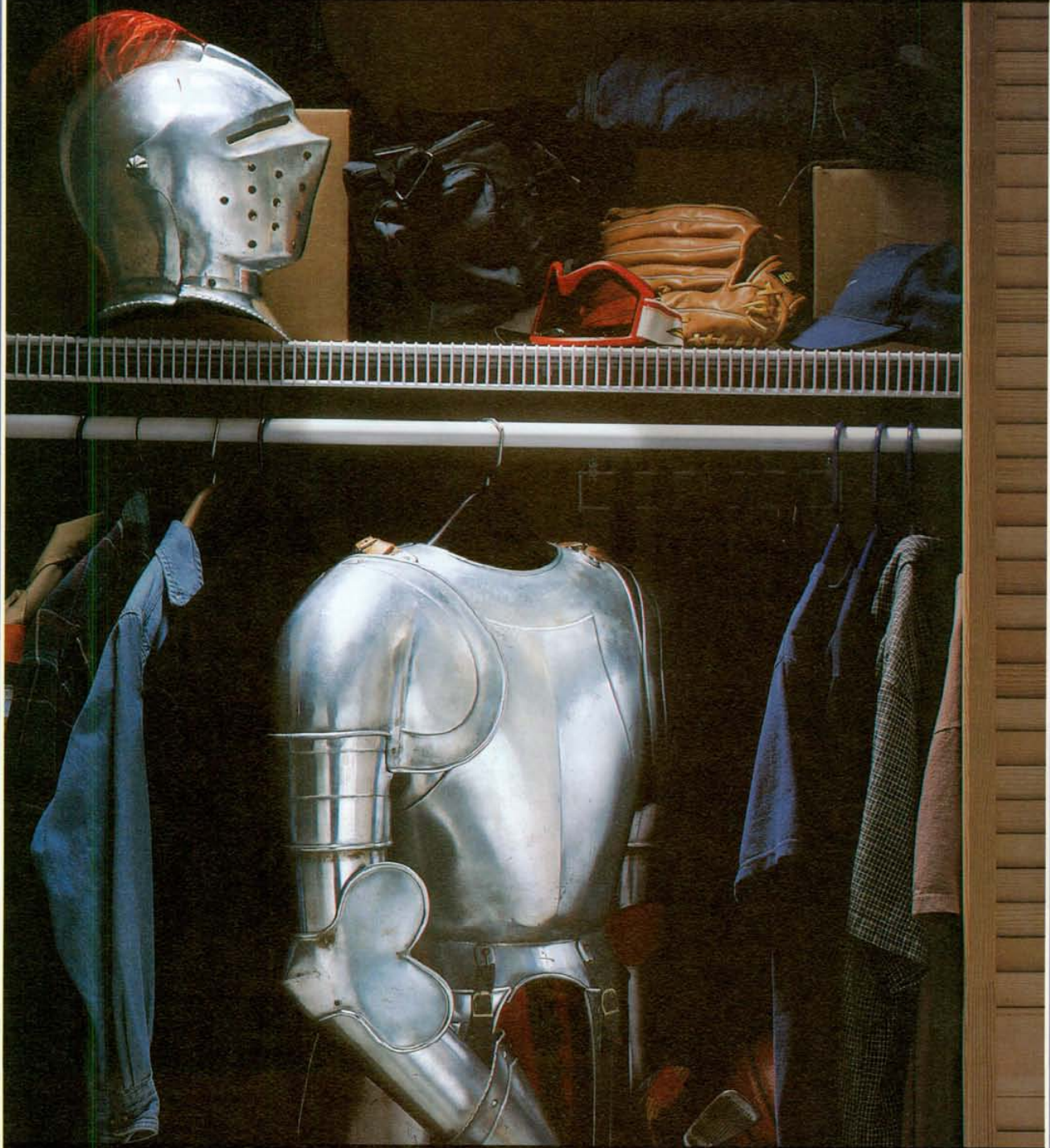


일라이산 바이스 사터니,
뉴질랜드 해밀턴 글렌뷰
스테이크,
딘웰 와드

질의 응답은 청소년 특집으로서,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응답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을 골라 게재합니다. 여러분의 답을 2002년 5월 1일까지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05/02,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다음 주소로 이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CUR-Liahona-IMag@ldschurch.org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타자하거나 정서하면 됩니다.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이 적혀 있는 응답만 채택됩니다. 사진 한 장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민감한 것이라면, 게재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질문: 제 친구들 중에는 계명을 어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즐기는 것 같고 고통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반면, 저는 교회 표준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보다 나아보이지 않을까요? □

갑옷을 입으십시오



적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갑옷으로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에베소서 6:11~18 참조)

오반삼의복 음웃된 출애급

고대와 현대의 이스라엘에 주어진
경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힘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모세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출애급과 브리감
영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미국 말일성도 개
척자들의 대이동 사이에는 교훈적인 유사성
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
엘과 현대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그림들과 야외극들은 개척자들의 행적
을 매우 잘 묘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 안 되는 저자들만이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개척자들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
며, 그보다 더 적은 극소수만이 개척자들의 행로와 출애급 사이
의 유사점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유사성은 두
무리 모두에게, 소금물로 이루어진 내륙의 바다와 요단강이 있
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또다른 매우 중요한 유사점들이 많습

니다. 고대의 이스라엘과 현대의
이스라엘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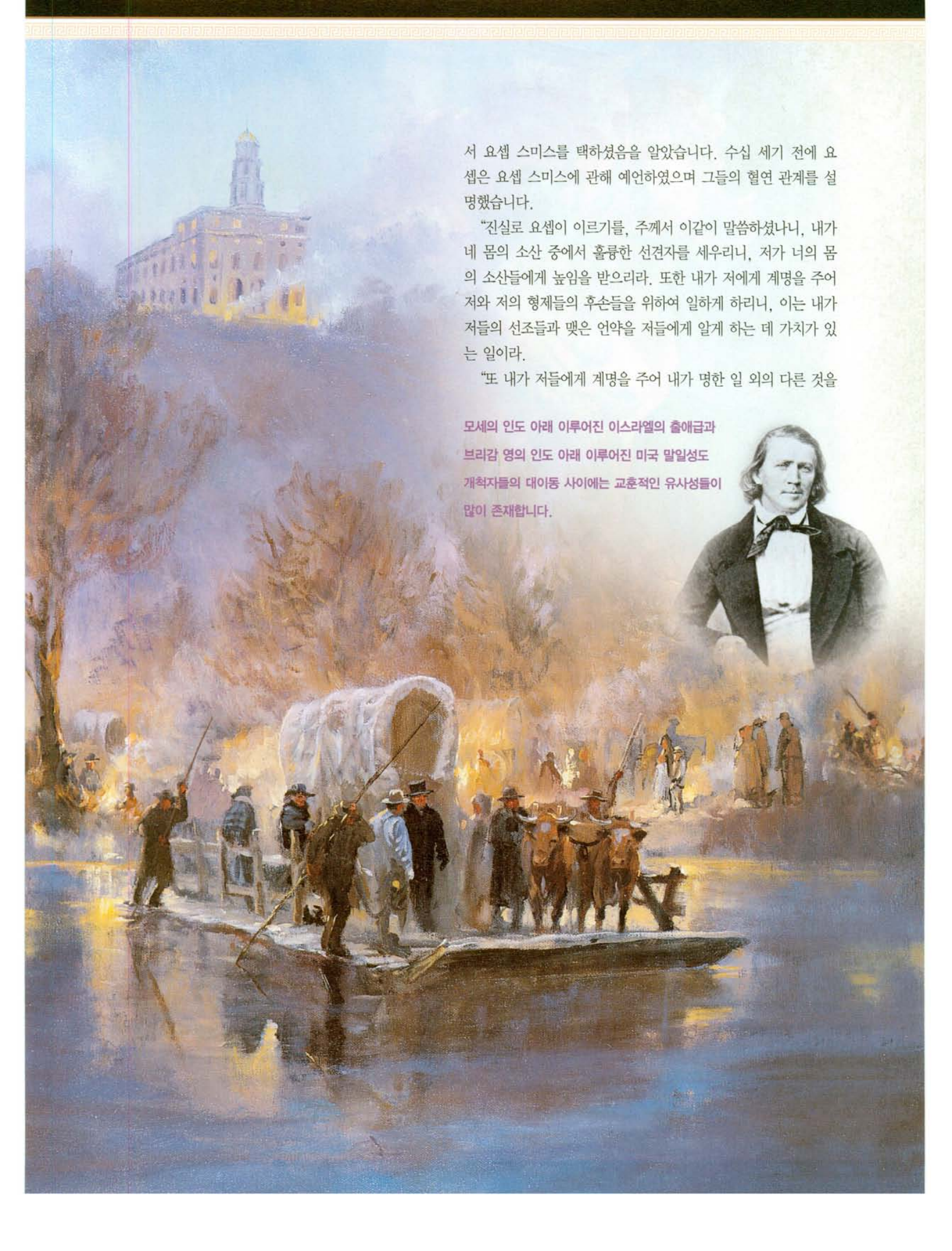
두 요셉

고대 이스라엘에는 모세 이전에도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현대 이스라엘
에도 브리감 영(1801~1877) 이전에
예언자, 즉 대관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무리의 전임 지도자들은 서로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
람의 이름은 모두 요셉이었는데, 한 사람은 애급으로 팔려갔던
요셉이며 또 한 사람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1805~1844)였습
니다. 구약성서에서 애급의 요셉보다 말일성도에게 더욱 중요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
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물론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의 옷조각이 찢지 않고 남아 보존된 것을 보았나니, ...
다른 잔류민들은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아 하나님께 영접 받
으리라.”(엘마서 46:24)

개척자들은 그 귀한 후손의 잔류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
의 아들, 요셉의 지파가 지닌 책임을 성취할 사람으로 주님께



서 요셉 스미스를 택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수십 세기 전에 요셉은 요셉 스미스에 관해 예언하였으며 그들의 혈연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진실로 요셉이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 내가 네 몸의 소산 중에서 훌륭한 선견자를 세우리니, 저가 너의 몸의 소산들에게 높임을 받으리라. 또한 내가 저에게 계명을 주어 저와 저의 형제들의 후손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저들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저들에게 알게 하는 데 가치가 있는 일이다.

“또 내가 저들에게 계명을 주어 내가 명한 일 외의 다른 것을

모세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브리감 영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미국 말일성도
개척자들의 대이동 사이에는 교훈적인 유사성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행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제 저가 나의 명한 일을 할 것임에 저를 내 눈에 위대한 자가 되게 하리라.”(니파이이서 3:7~8)

요셉 스미스 이세뿐 아니라 예언자의 부친 또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애급으로 팔려간 요셉의 예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보라 그 선전자를 주께서 축복하실 것임에 … 주께서 내 몸의 소산들에 관하여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 하노라.

“저의 이름은 나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저의 부친의 이름과 같을지며, 저는 나와 같으리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이루게 하실 일은 주의 권세로 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니파이이서 3:14~15; 또한 요셉 스미스 역, 창세기 50:26~38 참조)

야곱의 아들 요셉과 요셉 스미스에게는 더욱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요셉은 자신의 위대한 운명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창세기 37:2~11 참조) 같은 나이에 요셉 스미스는 물몬경에 관련된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세에 그는 처음으로 천사 모로나이의 방문을 받았는데, 천사는 소년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음을 알려

고대에 “애급 온 땅이 굶주리”게 되었을 때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바로가 애급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는 영원하고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는, 금판에 적힌 한 책을 번역해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종계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요셉 스미스서 2:33; 또한 34~41절 참조) 전해져야 했습니다.

두 요셉은 모두 핍박을 견디어 냈습니다. 고대의 요셉은 그가 범하지도 않은 죄로 거짓 기소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창세기 39:11~20 참조) 요셉 스미스는 날조된 혐의와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아버지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잔인한 시도 속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채색옷을 빼앗겼습니다.(창세기 37:2~33 참조) 요셉 스미스가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긴 주된 이유도 거짓된 형제들의 배반이었습니다.

고대에 “애급 온 땅이 굶주리”게 되었을 때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바로가 애급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창세기

41:55)고 했습니다. 말일에 오직 복음만이 제공할 수 있는 영양분에 굶주린 사람들을 요셉은 다시 한번 먹여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는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나의 말을 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5:10)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요셉 스미스로 인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니파이이서 32:3) 취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브리감 영

모세와 브리감 영에게도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들은 현명한 추종자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준비되었으며, 군대와 또다른 책임들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Flavius Josephus, *Antiquities of the Jews*, William Whiston 번역, 2.10.1~2 참조; 또한 사도 행전 7:22, 히브리서 11:24~27 참조) 브리감 영도 마찬가지로 지도자 역할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시온 진영의 행군 시, 그는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발휘하는 지도력을 지켜보았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2:61~134, 183~185 참조) 브리감 영은 예언자 요셉이 커틀랜드로부터 이주하도록 도왔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3:1~2 참조; 또한 Elden J. Watson 편, *Manuscript History of Brigham Young, 1801~1844* [1968], 23~24쪽 참조) 그는 또한 박해받는 성도들을 이끌어 미주리에서 나부까지 이주시켰습니다. (*History of the Church*, 3:250~252, 261 참조; 또한 John K. Carmack, "Missouri Era: Re-

sidue of Wisdom," in *Regional Studies in Latter-day Saint Church History: Missouri*, Arnold K. Garr and Clark V. Johnson 편 [1994], 2~3쪽 참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 양쪽 모두에게 있어, 일반법과 중

말일에 오직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영양분에 굶주린

사람들을 요셉은 다시 한번 먹여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는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나의 말을 받게 되리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교법은 한 사람의 지도자 아래 통합되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으며(요셉 스미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6쪽 참조) 현대의 모세, 브리감 영(교리와 성약 103:16)은 주님의 축복으로 말일성도들의 서부 이동을 이끌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36편 참조) 모세와 브리감 영은 모두 유사한 통치 유형을 따랐습니다.(출애굽기 18:17~21; 교리와 성약 136:1~3 참조) 브리감 영은 서부로 질서 정연하게 이주하기 위해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을 잘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두 무리의 지도자들이 그 측근들이 일으키는 불화를 견뎌야만 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따금 모세는 사랑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반대를 겪기도 했습니다.(민수기 12:1~11 참조) 말일성도 지도자들 또한 신뢰했던 측근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겪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1:104~105, 226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통합된 통치 유형이 주님께서 “온 땅에 큰 왕”(시편 47:2; 또한 스가랴 14:9 참조)이 되시고 시온에서 예루살렘까지를 다스리시게 될 때에 다시 시행될 것입니다.(이사야 2:1~4 참조)

애굽에서 시내 산까지의 여행은 약 석 달이 걸렸습니다.(출애굽기 19:1 참조) 윈터 쿼터즈에서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까지의 여행 또한 약 석 달(111일)이 걸렸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각 무리의 목적지를 짓과 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² 개척자들은 그들이 도착한 광야를 열매가 맺히는 밭으로 개간했으며 사막은 장미가 만발하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십 세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바 그대로였습니다.(이사야 32:15~16; 35:1 참조)

공통의 기적

두 무리 모두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매년 이 기적들을 되새깁니다. 유월절 축제는 고대 이스라엘의 여정과 관련이 있습니



에스겔은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다. 매년 7월이 되면 우리는 개척자들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상기합니다. 두 무리는 거친 광야의 계곡과 사막, 산들을 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라져 “육지 같이”(히브리서 11:29) 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개척자들은 얼어붙어서 큰 길이 된 넓은 미시시피 강을 건너서 미합중국을 떠났습니다.

출애굽기는 메추라기가 기적으로 찾아들어 고대 이스라엘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출애굽기 16:13; 민수기 11:32; 시편 105:40 참조) 개척자들도 그와 같은 경험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행이 나부에서 쫓겨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고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식량은 바닥이 났습니다. 1846년 10월 9일, 아이오와 주 몬트로우즈 근처의 강변에서 많은 메추라기들이 기적으로 야영지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메추라기들을 요리하여 640명 가량의 궁핍한 이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³(스탠리 비 킴볼, "Nauvoo West: The Mormons of the Iowa Shore," *BYU Studies*, winter 1978, 142쪽 참조)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영구 정착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일 또한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곡식을 지켜 준 갈매기들은 그 기적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 내렸던 재앙으로부터 고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출애굽기 15:26 참조)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께서는 미합중국의 남북전쟁이라는 재앙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주셨는데, 이 전쟁에서는 다른 어떤 전쟁에서보다도 많은 미국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영적인 힘의 유사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경과 성도들의 역경 모두 참으로 커다란 영적인 힘을 만들어 냈습니다. 두 무리는 그들에게 닥친 신앙의 시련을 견디어 냈는데, 그 과정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으며, 강한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 힘을 받았습니다.(이더서 12:6; 교리와 성약 101:4~5; 105:19 참조) 그들은 가정과 물질적인 소유를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서서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출애굽기 13:21~22; 민수기 14:14; 신명기 1:33; 느헤미야 9:19 참조) 주셨습니다. 개척자들에게 내려진 신성한 보호의 손길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3:xxxiv 참조; 또한 토마스 에스 몬슨, 대회 보고, 1967년 4

월, 56쪽 참조)

두 무리에게 주어진 경전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힘에 관해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라 [라] ...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출애굽기 13:3)

말일성도들에게도 이에 비견될 만한 성구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나 주가 하늘의 권능을 발휘하려고 나의 팔을 벌였음이다. 너희는 지금 볼 수 없으려니와 조금 후에 볼 수 있으리니, 내가 존재함을 알게 ... 되리라."(교리와 성약 84:119)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동식 장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성약을 맺고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그들은 여정 동안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⁴ 서부로의 험난한 여정에 오르기 전에 많은 말일성도들도 또한 나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애굽에서의 탈출을 축하했습니다. 말일성도들도 회복된 교회의 세계적인 본부를 산 꼭대기에 세워 이 탈출을 축하했습니다. 이 일을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기쁘게 외쳤습니다.(예레미야 23:7~8 참조)

시대를 초월한 복음 원리

고대와 현대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경전에는 시대를 초월한 복음 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예언을 익히 아실 것입니다.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성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이리라"(이사야 29:4)

"땅에서" 나와 우리 시대의 백성들에게 "티끌에서 지껄"이라는 말처럼 물몬경을 정확히 묘사하는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까?

구약성서에는 물몬경에 대해 예언하는 다른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이 제가 1997년 1월에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열린 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제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식사 전에 있었던 비공식 환영 모임에서 저는 뉴욕에서 온 한 저명하고 박식한 유대교 랍비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또다른 랍비가 우리의 대화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그 랍비는 뉴욕에서 온 동료에게, 언젠가는 하나가 될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에 관한 성구를 기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 친구는 잠시 멈칫거리다가 턱을 만지며 골똘히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그 구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습니다. 그 장에 선생께서 찾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제 랍비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교리는 우리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에스겔 37: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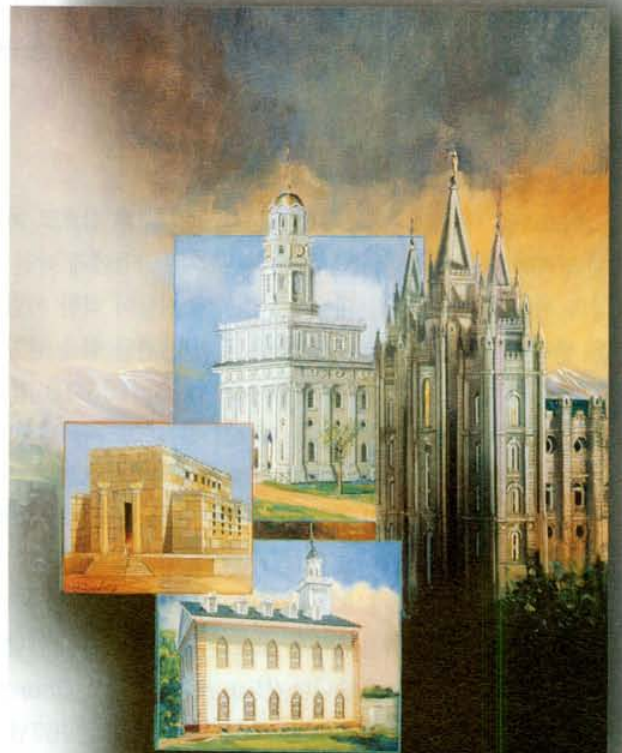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의 성도들은 성경과 물문경을 한 손에 지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특권의 가치를 결코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는 물문경의 영을 “신집”(이사야 29:4)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성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물문경에는 히브리 사상, 곧 그 전통, 상징, 속어, 문학 형태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의 80퍼센트 이상이 구약성서의 일부 시대와 시대적으로 같기 때문에 신집(역자 주: 익숙)한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복음의 진리와 원리는 고대 및 현대의 이스라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백성들을 이 지상에 두셨을 때마다, 그들은 복음의 의식 그리고 승영 및 영생에 관련된 다른 영적 현상들이 집행될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엘 백성들에게 중요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은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몇 가지 다른 이유들로 존중되었습니다. 아담에서 모세의 시대까지 안식일은 창조의 수고를 마치고 안식을 취했던 한 날로 지켜졌습니다.(출애굽기 20:8~11; 31:16~17 참조) 모세의 시대에서 주님의 부활 때까지, 안식일은 또한 애굽에서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신명기 5:12~15; 이사야 58:13; 에스겔 20:20; 44:24; 모사이야서 13:19 참조) 말일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사도행전 20:7; 고린도전서 16:2; 요한계시록 1:10; 교리와 성약 59:9~19 참조)

신권의 회복은 구약성서의 창세기와 말라기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십일조의 원리에 다시금 생기를 주었습니다.(창세기 14:20; 말라기 3:8~12 참조) 현대 이스라엘의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가르침을 통해 십일조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이후부터는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 이로써 나의 성 신권을 위하여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교리와 성약 119:4)

시대를 초월한 복음의 진리에 다시 주의를 돌려볼 때, 성전 의식에 관련된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고대와 현대의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주는 또하나의 끈입니다.

지상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백성들이 있었을 때마다, 그들은 복음의 의식과 승영 및 영생에 관련된 다른 영적인 현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Bible Dictionary, “Temple”, 780쪽 참조)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의 침례반과 헌납 기도는 오늘날 성전에서 채택하고 있는 본보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역대하 4:15; 6:12~42; 교리와 성약 109편 참조) 구약성서의 성구는 성전과 관련된 특별한 의복(출애굽기 28:4; 29:5; 레위기 8:7; 사무엘상 18:4 참조)과 의식(출애굽기 19:10, 14; 사무엘하 12:20; 에스겔 16:9 참조)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24:37~40 참조) 주님께서 그분의 충실한 아들과 딸들에게 신권의 가장 높은 축복을 회복하시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리는 크나큰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창세 이전부터 숨겨온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일을 나의 교회에 드러내 보이려 함이라.”(교리와 성약 124:41)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진리가 1833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우리 종교의 특징이 되는 불변의 원리로서 그 진리와 친숙합니다. 이 계시의 마지막 구절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21) 유월절에 대한 이 언급은 주님께서 여러 세기 전에 그분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그러셨던 것처럼 현대 이스라엘의 순종하는 성도들도 육체적,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성약, 분산, 그리고 집합

두 무리의 이스라엘이 모두 소중히 여기는 다른 신성한 가르침으로는 아브라함의 성약의 교리와 이스라엘의 분산 및 집합의 교리가 있습니다.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필멸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132:29~50; 아브라함서 2:6~11 참조)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가계에서 나올 것이며, 그의 후손들에게 특정한 땅이 상속되고, 지상의 나라와 민족이 그의 후손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과 그 밖에도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약에 대한 확인과 재확인 이 구약성서의 많은 구절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창세기 26:1~4, 24, 28; 35:9~13; 48:3~4 참조)

그 성약의 어떤 면은 이미 성취되기도 하였으나,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경은 현대 이스라엘인 우리가 주님의 성약의 백성에 속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니파이일서 14:14; 15:14; 니파이서 30:2; 모사이사서 24:13; 니파이삼서 29:3; 몰몬서 8:15 참조)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성약이 바로 이 말일에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니파이일서 15:12~18 참조) 주님께서 다시 한 번 아브라함의 성약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24:58 참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구약성서에서보다도 현대의 계시에서 더욱 빈번히 언급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과 너무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⁶

이스라엘의 지파의 분산과 집합에 관한 교리 또한 물론경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교훈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니파이일서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난 뒤 다시 한 곳에 모이리라 하시었으니, ... 감람나무의 원래의 가지였던 이스라엘의 잔류민이 원목에 접붙여지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곧 저들이 저들의 주가 되시며 구속주이신 참 메시아를 알게 됨이라”(니파이일서 10:14)

현대 이스라엘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 [그]의 왕국의 열쇠와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주어서 그들을 보냈으며, 충만한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만물을 하나로 통일”(교리와 성약 27:13; 에베소서 1:10과 비교)시키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척자들의 여행과 고난은 영원토록 중대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국제적인 이민 또는 마차나 손수레를 가지고 대륙을 횡단한 이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가득 채우게”(요셉 스미스, 윌포드 우드럽, *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selected by G. Homer Durham* [1946], 39쪽에서 인용) 될 끝없는 사업의 기초를 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흠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예레미야 31:10) ⁷

그들은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주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먼 섬”으로 초기부터 파송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척자들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오기 수년 전에 영국과 프렌치 폴리네시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내려온 요셉의 가계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이끌도록 정해진 후손들입니다. 개척자들은 그들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과 구약성서를 통해, 회복된 경전과 계시에 의해,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집합이 그들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이 우리 말일성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약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초기 개종자들은 현대 이스라엘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교회의 모든 충실한 회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은 저들의 것이”며 “살았거나 죽었거나 현재 것이나, 미래 것이나, 다 저들 것이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교리와 성약 76:59) 입

니다.

고대 및 현대의 이스라엘은 구약성서의 다음과 같은 영원한 메시지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신명기 7:9) ⁸

우리 세대에 신앙을 지켜야 하는 책임은 바로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책임”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출애굽기 19:6) 되어야 할 운명입니다. 우리가 성약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사도행전 3:25; 니파이삼서 20:25~26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간에 모아지고 이삭으로서 담겨져야 하는 후손의 잔류민인 것입니다.(엘마서 26:5 참조)

현대 이스라엘의 성도로서, 우리는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짊어졌습니다. 우리는 물론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책을 성경과 하나로 여깁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를 회복의 위대한 예언자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을 오늘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예언자로 지지합니다. □

1997년 9월 7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열린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하신 말씀.

주

1. 교회의 이주에서 브리검 영이 한 역할에 관해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아담 이래로 많은 이주와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야벳, 모세, 리하이, 그리고 또다른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을 이끌었습니다. 머나먼 과거의 일은 주님의 인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운 반면 가까운 과거의 일들은 인간의 능력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잠시 동안, 일리노이에서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피난했던 물론 개척자들의 위대한 행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대이동에 필적한 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브리검 영이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 높이를 알 수 없는 산을 넘고 다리가 없는 강을 건너 지나며, 적대적인



이스라엘의 지파의 분산과 집합에 관한 교리 또한 물론경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교훈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척자들은 오래 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집합이 그들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인디언 지역을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물론 브리감 영은 주님의 손에 놓인 도구였으나 현대의 이스라엘을 평원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끈 이는 그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주님이었습니다.”(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2], 28쪽)

2.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8, 17; 13:5; 33:3; 레위기 20:24; 민수기 13:27; 14:8; 신명기 6:3; 11:9; 26:9, 15; 27:3; 31:20; 여호수아 5:6; 예레미야 11:5; 32:22; 에스겔 20:6, 15; 요셉 스미스 역, 출애굽기 33:1 참조. 개척자에 대해서는, 교리와 성약 38:18~19 참조.

3.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유화는 매추라기 잡기이며, 시 시 에이 크리스텐슨이 그린 것으로 브리감 영 대학교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4. 고대 이스라엘의 의식과 성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다. 현대 이스라엘의 의식과 성약은 교리와 성약 84편 26~27절을

참조한다. 고대 이스라엘의 장막은 사람들이 보다 높은 율법을 잃기 전에 이동용 성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교리와 성약 84:25; 124:38)

5. 아브라함은 경전에서 506개의 구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289개의 구절은 현대의 계시에 있다.

6. 성약은 또한 입양에 의해서도 받을 수가 있다.(마태복음 3:9; 누가복음 3:8; 갈라디아서 3:27~29; 4:5~7 참조)

7. 영어의 gather(집합하다)는 히브리 동사 qabats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집합하다, 모이다”라는 뜻이다.

8. 신명기 11:1, 27; 19:9; 30:16; 여호수아 22:5; 요한일서 5:2~3; 모사이사서 2:4 참조. 구약성서의 다른 구절은 “천 대” 동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을 언급하고 있다. (역대상 16:15; 시편 105:8 참조)

통가

믿음의 백성의 땅

라린 포터 곤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통가에서 굳건히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신앙은 이미 통가 문화의 일부이다.

바우 섬의 토요일 늦은 오후, 12명의 친자녀 외에도 20명의 어린이들을 키운 사미소니 우아실라아와 메레아네 우아실라아가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다. 석양의 노을빛이 방금 빨아서 빨래줄에 널어 놓은 하얀 셔츠를 투과하여 집 주위를 둘러싼 싱싱하고 푸른 잎들 위에 반사된다. 한 아이는 계단을 쓸고 다른 아이들은 마당을 청소하고 있다. 안에서는 우아실라아 자매와 딸들이 일요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각자, 코코넛 우유로 버무린 고기를 타로 잎으로 둘러싼 뒤 다시 바나나 잎으로 싸서, 뜨거운 바위와 바나나 잎사귀로 만든 야외 화덕 안에서 밤새 서서히 익힌다. 스테이크 축복사이며 사이네하 고등학교



의 교장인 우아실라아 형제와 아들 몇 명은 그들의 타로 밭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잡초와 덩굴들을 연기가 솟아나는 불 속으로 던져 넣는다. 저무는 태양의 황금 빛 햇살은 모락모락 솟아오르는 연기 사이로 비쳐 들고 불지피는 한 소년의 옆모습을 어루만진다.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통가의 수만 가정에서 매주마다 볼 수 있는데, 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통가의 국법이기 때문이다. 국왕 조오지 투포우 일

오른쪽: 이 젊은 말일성도는 이 땅에 사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작은 사진:** 통가 누쿠아로파 서 스테이크, 테에키우와드의 사레시 피피타와 사아네 피피타가 몇몇 식구와 함께 있다.



세 타우파아하우가 감리교 선교사에게서 1831년 8월에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 나라에는 기독교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작은 삽으로 흙을 한 움큼 떠서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고 기도하면서 통가의 섬들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한다. 오늘날 통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상점과 사업체들은 문을 닫는다. 택시나 버스도 운행되지 않는다. 주변이 모두 적막해지는 것이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피타 호포아테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국왕 타우파아하우 투포우 4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므로, 통가 사람들은 일요일에 교회로 갑니다. 그런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식사를 합니다.”

통가 문화와 복음 사이의 유사성이 비단 안식일 준수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호포아테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가족을 가장 우선에 둡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조부모님들, 삼촌, 숙모, 사촌, 조카 등 이 모든 사람들을 친척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가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점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통가의 106,000명 중 40퍼센트가 넘는 46,000명 이상의 국민이 말일성도이며, 이것은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보다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통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놀랄 것이 못 된다. 리아호나 고등학교의 교사인 헬렌 라투는 이렇게 말한다. “통가 사람들이 말일성도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던 훌륭한 가치관을 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두 배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리아호나 고등학교의 교장인 멜레 타우모에페아우도 이 말에 동의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주로 신앙에 의지하여 생활합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로판가 물리와 아나 물리

아로판가(아로) 물리의 생애는 복음으로 인해 한층 훌륭해졌다. 바바우에 살던 어린 소년이었던 그는 심한 두통과 코피 때문에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다.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그는 말일성도인 아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아로는 1957년 12월에 침례를 받았으며 얼마 후에 집회소 건축을 돕는 노동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건강 문제로 계속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아파서 누워 있던 어느 날, 그는 신권 축복을 받았는데 주님을 섬긴다면 이러한 병이 결코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 축복은 성취되었다.

교회 부름을 영화롭게 수행하는 동안 아로의 지식과 이해력은 증대되었다. 1960년에 그는 아나와 결혼을 하였으며 두 사람은



1962년부터 2년간 함께 선교사로 봉사했다. 두 사람이 봉사했던 두 지부 모두에서 몰리 형제는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선교 사업을 끝낸 후에 몰리 부부와 그들의 어린 두 딸은 아나의 오빠와 함께 농사를 짓기 위해 에우아 섬으로 이사했다. 아로는 지방부장의 보좌로 봉사했다. “선교 사업 덕분에 우리가 받은 부름들에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11년 동안 지방부장으로 봉사했습니다. 14명의 자녀 중 나머지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복음을 통해 받은 훈련은 그의 개인 생활 속으로도 이어졌다. “1982년 허리케인 아이작이 왔을 때, 우리 농작물은 완전히 망가졌으며 저는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기회가 찾아와 저는 삼 년 동안 잡화점을 관리했습니다. 지방부장으로서의 제 경험이 제가 할 일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으나 성신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현재 아로는 성전 인봉자로, 그리고 아나는 성전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다. 아로는 이렇게 말한다. “비록 저는 태평양의 한 작은 섬에 사는 농부이지만, 복음의 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에 대한 증인입니다.”

“저는 봉사하고 싶습니다.”

1891년 첫번째 말일성도 선교사가 통가의 수도, 누쿠아로파에 도착하여 사모아 선교부 산하 통가 지방부를 개설하였다. 최초의 통가 선교부는 1916년에 조직되었으나 1922년의 한 법률로 인해 소수의 북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비자 발급이 중지되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교부장은 통가 사람들을 조국의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불렀다. 그 후로 이십년 동안 통가는 충실한 멜기세덱 신권 지도자로 구성된 많은 수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여 왔다. 그래

왼쪽: 사미소니와 메레아네 우아실리아.

오른쪽 위: 바바우 항구



서 1940년에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통가를 떠났을 때, 지역의 강한 신권 지도력은 이미 제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1946년 7월 7일 몰몬경이 통가어로 출판됨으로써 중요한 선교 도구를 갖게 되었다. 1954년에 통가 성도들은 통가어로 된 교회 잡지를 받기 시작했다.

오늘날 선교사로 봉사하는 일은 젊은 통가 사람들 사이에서 한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다. 켈리쿠와 키발루 선교부장은 통가 누쿠아로파 선교부를 감독하고 있는데, 이 선교부는 교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 선교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키발루 선교부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언제나 이곳 선교부에는 평균 160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전원이 통가 사람이 아닐 때는 거의 없습니다. 종종 그들은 서로를 알며,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와 언어를 압니다. 회원들은 그들을 알고, 먹이며, 그들에게 거처를 제공합니다.”

1968년 9월에 통가의 첫번째 스테이크가 생겨났다. 교회 회원의 수는 10,000명이 조금 넘었으며 선교부에는 10개의 지방부와 50개의 지부가 있었다.

통가 팔레투아 형제는 초기 지역 지도자 중 한 명이다. 이 78세 된 노인은 종종 웃곤 하는데, 그는 선교부장, 지역대표, 성전장, 그리고 축복사로 봉사한 최초의 통가 사람이다. 많은 통가 부부와 같이 그와 아내인 루이사 헤헤아 코나이도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 주었다. 지나간 시절의 스크랩북과 수백 장의 사진들이 그들 거실의 한쪽 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다른 벽면은 장식이 되어 있지 않고 수수하다. 이곳에서 팔레투아 형제는 축복사의 축복을 주며 일생에 걸친 헌신적인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시오네 투아라우 라투

교회가 운영하는 리아호나 고등학교 학생의 99퍼센트가 교회 회원들이다. 1950년대에 입학했던 투아라우 라투는 회원이 아니었다. 같은 신앙을 갖지 않고 학교에 다녔던 많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시오네는 간증을 얻고 침례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저는 아홉 자녀가 있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작은 섬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집안에 도움이 되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교회 대학(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하와이)에 응시해 보기로 결심했으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밀하게 기도할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는 크게 자라나 커다란 잎이 있는 타로 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나무 숲에서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면 말이지, 나도 여기서 기도해서 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 저는 금식을 시작하고 타로 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느꼈습니다. 일어났을 때 저의 웃옷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오네 라투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또 장학금도 받았다. 그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기억한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타로 밭에서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왔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으로 돌아와서 내 가족과 조국에 도움이 되겠다고 그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라투 형제는 귀국해서 오랫동안 교회 지도자로 그리고 재능있는 사업가로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 그는 교회 공보 책임자라는 그의 부름에 썩 어울리는 사람으로, 통가라는 나라에서 말일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이 커져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가 청소년에 관한 텔레비전 토론회 참여자

인 한 지역 사회 지도자는, 교회의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그들의 시간을 경전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배우는 데 바치고 있다며 교회 선교사들을 칭찬했다.

가족이 먼저

라니 호포아테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이며 전통입니다. 어린이들은 예의 범절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가족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마을에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는 보호자를 두기까지 합니다.”

통가 서비스 센터의 솔리아시 베아 카우푸시 형제도 이에 동의한다. “통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먼저 가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교회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12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부양해야 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서는 별로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성인이 된 자녀들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통가를 떠나서도 급여의 일부를 가족들에게 보내곤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많은 가족들에게는 중요한 수입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통가를 떠날 때에도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에 대한 정 때문에 통가와 깊은 유대감을 여전히 느낍니다. 제 친형제 자매는 지금 통가, 뉴질랜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매우 친밀합니다.”

물론 가족이 이혼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확장된 의미의 대가족과 사랑이 있는 와드의 일원이 되는 것이 가족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복음의 가르침은 이러한 사람들이 충실하게 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육 년 전에 남편이 자신과 일곱 자녀를 버리고 떠난 한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말일성도가 아니었지만, 자녀들과 저는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 그리고 성구 암기도 하면서 경전 공부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제과점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며,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 또한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족과 와드 회원들도 우리를 도와 주었습니다.” 이 가족은 세 아들과 한 딸이 선교

사로 봉사하고 성전에서 결혼했다. 나이 어린 자녀들은 여전히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이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제 아들들의 신권과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우리 가족을 지탱 시켜 왔습니다.”

통가 누쿠아로파 성전

하얗게 빛나는 통가 누쿠아로파 성전은 하나의 이정표이다. 1983년 8월 9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헌납한 이 성전은 일주일에 6일 동안 문을 열어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밤새 열려 있어 회원들이 조상들을 위한 성전 의식을 집행하느라 분주하다.

이곳에서는 가족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통가 사람들은 조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다. 많은 무덤들이 꽃뿐만이 아니라 나무틀에 넣어 만든 수공 퀴트로 치장되어 있다. 퀴트는 자연적으로 썩을 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다. 이러한 퀴트는 돌아가신 그들의 조상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랑과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과거에 통가 사람들은 조상에 관한 정보를 타파 천(나무 껍질을 눌러 만든 거친 종이)으로 된 긴 두루마리에 기록했다. 많은 가족들이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들의 가족 역사를 알고 있다. 근래에는 많은 교회 회원들이 성전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 이 정보를 종이 또는 컴퓨터에 입력해

아래쪽: 몇몇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있는 시오네 투아라우와 헬렌 카레오아로하 카네아쿠아 라투. 위쪽: 통가 누쿠아로파 성전



왔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유익을 얻고 있다고 시오네 피네야가노포 성전장은 말한다. “여기에 성전이 있음으로 해서 통가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축복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안 또는 병 고침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서의 신권의 권세에 관한 간증이 통가에는 아주 많이 있다. 통가 타푸에 사는 44세의 시오네 시아키 형제가 열과 고통으로 시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통가의 병원은 환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한 간호사가 의약품을 그의 집으로 가져왔다. 한 달 이상 매일 고통이 있었다. 시아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죽을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호부조회 회장님이 와드 금식을 제안하셨습니다. 회장님은 감독님께 이야기했고 300명이나 되는 우리 와드 회원들은 두 번이나 저를 위해 금식했습니다. 금식 이전에는 움직일 수도 없었으나, 두 번째 금식이 끝나고 두 주 후에, 저는 일어섰고 점차로 호전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성전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전에 있을 때면, 제 병이 나았던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 속에 곧바로

떠오릅니다.”

바바우에 사는 아호가루와 아나 푸리바아
이의 딸인 메레 또한 병 고침을 받았다. 9년 전에 메레는
알 수 없는 병으로 쇠약해졌다. 3월부터 12월까지 그녀는
열과 발작, 환각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낮 동안에
는 어머니가 메레의 곁에 머물렀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
을 하고 난 뒤 밤이면 병원에 와서 그녀의 침대 곁을 지켰
다. 메레는 밤새 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휴식을 취했는데,
아버지가 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꼈기 때
문이었다.

메레는 점차 회복되어 지금은 아주 가끔씩만 문제가 있을
뿐이다. 아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
을 배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
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메레 타우모에페아우는 이렇게 말한다. “이곳에 있어 참
으로 평화스럽고 안전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금



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이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주위의 신앙을 통해
그 이상으로 보상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질 수
는 없지만, 분명히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
습니다.”

성악을 세움

바바우의 월요일 저녁, 날은 어두워졌지만 많은 가정의 창
밖으로 따스한 불빛이 새어 나온다. 가정의 밤을 갖는 한 가
정에서 들려오는 “난 하나님의 자녀” 노랫소리가 밤 공기를
가른다. 투기아와 린다 하베아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웃음 소
리가 초등학교 노랫소리에 섞여 흘러 나온다.

린다는 이렇게 말한다. “음악은 어린이들을 단합시키고 그
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언어입니다. 어린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때때로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
래는 아이들과 함께 남아 있고 아이들은 결국 다 이해하게 됩
니다.”

마을 건너에 사는 우아실리아 가족 또한 가정의 밤을 갖는
다. 평소처럼 자녀들의 친구 여러 명이 찾아와서 함께 찬송
가를 불렀고, 그리고 나서 어떤 친구와 이웃에게 선교사
토론을 권유할 것인지를 함께 의논했다.

각 가정마다 말일성도 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
진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약속된 축복을 누린다. “내 안식일을 지키
... 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
전하게 거주하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즉...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
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
을 이행하리라”(레위기 26:2, 4~6, 9)

통가에서는 이러한 약속된 축복들이 그 땅과 믿음
의 백성들 위에 풍성하게 내리고 있다. □

통가에서는 말일성도 선교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알고 계십니까?

4월에 일어났던 일

다음은 교회 역사상 4월에 일어났던 주요한 몇몇 사건을 간추린 것이다.

1830년 4월 6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되었다.(교리와 성약 20편 참조)

1836년 4월 3일: 구세주와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커틀랜드 성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났다.(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1844년 4월 30일: 에디슨 프랫이 투부아이 섬에 도착했다. 프랫 장로는 남태평양 지역 최초의 말일성도 선교사였다.

1893년 4월 6~24일: 솔트레이크 성전이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에 의해 31회에 걸쳐 헌납되었다.

2000년 4월 1~2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새로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연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시온의 여류 시인

본부 상호부조회 제2대 회장이었던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1804년 1월 21일에 태어났다. 개종하기 전 31세에 그녀는 이미 장래가 촉망되는 시인이었다. 그러나 교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의 주제는 애국심에서 성도들을 고양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재능으로 예언자 요셉은 엘리자에게 “시온의 여류 시인”이라는 칭호를 주기까지 했다. 성도들이 이곳 저곳으로 쫓겨 다니던 시절 그녀가 겪었던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시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 중 많은 시가 노래로 만들어졌다. 가장 잘 알려진 찬송가 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 높은 영광 보좌”(찬송가, 139장)이다.

1855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엔다우먼트 하

우스가 헌납되었을 때, 브리감 영 대관장은 엘리자 자매에게 그곳에서 자매들의 일을 감리하게 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 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을 했으나 주님께서는 그녀를 강화시켜 주셨다. 1866년에 영 대관장은 그녀에게 상호부조회를 관리하는 부름을 주었으며, 그녀는 21년 동안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녀는 또한 교회의 제5대 대관장이었던 동생 로렌조 스노우의 전기를 저술하였으며, 이후로도 저술 활동을 계속했다. 그녀는 83세를 일기로 유타에서 사망했다.

위쪽부터: 휘트머의 톨니뮤 집에서 교회가 조직됨, 풀만 작: 신권의 열쇠를 회복하는 엘리자, 로버트 티베렛 작: 사진 촬영: 에디슨 프랫, 솔트레이크 성전, 컨퍼런스 센터, 엘리자 알 스노우의 사진: 그림: 해리 엔더슨,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지도자 수첩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신뢰하는 모범을 보여 주셨다. 여러분이 책임있는 직분에 있다면, 업무의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 임무에 관해 알고 이해한다.
- 한 사람에게 임무를 받아들이도록 부탁

한다.

- 구체적으로 말한다.
- 원수 날짜를 정한다.
-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와서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에 대해 후하게 칭찬한다. □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활용하기

가르침 제언

■ “영감을 주는 생각”, 2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내세에서의 우리의 성품은 이곳에서의 성품과 똑같을 것이라고 말한다. 말과 행동을 가다듬는 데에서 우리의 소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의로운 소망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속죄에 대한 간증”, 6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삶이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 “회개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14쪽. 제이 이 젠슨 장로의 감독이 성전 추천서 접견 시에 그에게 했던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 “예수 그리스도”, 친2쪽. 반원 또는 가족에게 구세주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질문한다. 그들의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설명하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의 14가지 제언과 비교하여 본다.

이번 호의 주제들

- 가르침 48
- 가정 복음 교육 5
- 가정의 밤 48
- 감사 26
- 개종 18
- 교회 역사 30, 47
- 구약성서 30, 친7
- 구원의 계획 친14
- 방문 교육 25
- 병 고침 18
- 보호 29
- 봉사 2, 26
- 부 26
- 선교 사업 6
- 성신 6, 25
- 성전 및 성전 사업 친13, 친14
- 성찬 친4
- 세계적인 교회 40
- 소망 18
- 속죄 6, 14, 친4
- 순종 29
- 신약성서 이야기 친8
- 안식일 40
- 역경 6, 18
- 영감 2
- 예수 그리스도 2, 6, 14, 18, 22, 친2, 친4
- 예언자 2
- 용서 친8
- 지도력 47, 48
- 초등학교 친14
- 평안 22
- 회개 6, 14

십일조의 축복

십일조에 관해 신앙을 증진시킨 경험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십일조의 축복에 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전자우편 CUR-Liahona-IMag@ldschurch.org.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그리고 워드 및 스테이크명(또는 지부 및 지방부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윌리엄 헨리 마켓슨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누가복음 24:51~52)



“예수님과 그분의 속죄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부활의 은사가 온 인류에게 대가없이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곧 영생의 축복이 기꺼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또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속죄에 대한 간증”, 6쪽 참조.

